

청년들, 청년세대담론을 해체하다

연구책임자: 김선기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석사과정)

이 보고서는 2014년도 서울시 청년일자리허브 연구/조사 사업의 결과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차 례

1. 연구의 개요

-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 2) ‘세대’란 무엇인가? 7
- 3) 연구의 설계와 보고서의 구성 21

2. 세대론의 틀린 전제들 해체하기

- 1) (IMF, 촛불이 아닌) 의식 형성의 개인적 계기들 71
- 2) 청소년기 이후에도 계속되는 정치사회화 32
- 3) 신인류가 아닌 청년세대 - 과장된 세대 격차 9
- 4) 단일하지 않은, 이질적인 세대 내부 43

3. 세대담론이 실패하는 지점들

- 1) ‘세대의 정치’의 한계 4
- 2) 세대담론의 세대화 효과, 그리고 세대화의 역효과 54

4. 결론을 대신하여 50

참고문헌 51

부록

<부록1> 청년(들)의 이야기 45

<부록2> 심층인터뷰 질문지 47

김선기 (2014). 세대연구를 다시 생각한다: 세대주의적 경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 <문화와사회>, 통권 17호, 발간중. - 이 보고서에서 다 다루지 못한 연구자의 세대연구에 대한 이론적 주장은, 이 논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 연구의 개요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989년생인 나는, 한국사회에서 나온 기존의 세대에 대한 지식을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애매한 위치에 서 있다. 심광현(2010, 19쪽)의 구분에 따르면, 1978년~88년생은 ‘IMF세대’이고 1988년 이후에 출생한 출생코호트는 ‘촛불세대’로 분류되기 때문에 나는 ‘촛불세대’로 명명된다. 그의 분류법상 IMF세대는 “1997년 말 터진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신자유주의가 전면화된 시기에 청년기를 지낸 암울한 세대”(54쪽)다. 이들의 대학생활은 “치열한 경쟁과 무한한 ‘스펙 쌓기’의 장으로만 점철”되어 있으며, 이들의 “객관적 지위는 비정규직 ‘88만원 세대’이거나 사회진출이 유예된 준-실업자이지만, 소비습속만은 상층 부르주아의 행태를 지향하는 세대”(55쪽)다. 이들 세대는 “강화된 신자유주의와 이로 인해 극심해진 생존경쟁 속에서 자신의 안위만을 챙기는 무한이기주의로 경도되거나, 직접 보고 겪은 계급적대의 현실과 절망감 속에서 계급의식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56쪽). 촛불세대는 “2008년 5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열렸던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 때 핵심 동력으로 직접 참여했거나 현장에 참여하지는 않았더라도 최소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당시의 청소년들”(57쪽)이다. 이들은 “사회비판적이면서도 기존 운동권과는 구별되는 감성을 지닌다”(59쪽). 또한 이들은 “IMF 이후 한국 경제가 회복세에 올랐을 때 청소년기를 보냈고, 따라서 비교적 안정적이고 풍요로웠던 경제적 배경을 가졌던 덕분에 소비가 몸에 밴 한편 탈물질주의적인 가치들도 수용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가진 세대”(59쪽)이기도 하다. 그런데 박재홍(2009, 25쪽)의 구분에 따르면, 1981~90년생 안에 속하는 나는 ‘W세대, 광장세대, 88만원세대’로 1991~2005년생 ‘웹2.0 세대, 2.0세대’나 1971~80년생 ‘신세대, IMF세대’와 구별되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2007년 ‘88만원세대론’이 대중적으로 유행하면서, 이후 ‘청년세대’¹⁾를 둘러싼 다양한 세대담론들이 등장해서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기 위해 경쟁해 왔다(<표 1> 참고). 88만원세대론이, 그리고 20대 개새끼론 혹은 20대 무용

1) 사실 ‘청년세대’라는 개념은 연령을 나타내는 명사인 ‘청년’과 ‘세대’를 병치하고 있다는 면에서 모호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어색한 개념이 실제로 지칭하는 것은 사실 ‘요즘 젊은 것들’에 다름 아니다.

론과 짝을 이룬 촛불세대론이, 88만원세대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다고 주장한 삼포세대론이 있었다. 그리고 정부와 보수 세력이 88만원세대론에 대한 반격으로 내놓은 실크세대, IP세대, G20세대, G세대, P세대, S세대 등의 세대론들도 있었다.²⁾ 20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인 나는 서로 상반되는 다양한 청년세대담론들의 호명을 받아 왔다. 마치 혈액형별, 별자리별 성격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와 비슷하게, 얼핏 맞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은 애매한 기분을 느꼈다.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면 한 달에 88만 원 정도를 받을 것 같지만, 나중에 취업을 하면 그것보다는 많이 받을 거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다. 연애, 결혼, 출산에 대한 생각이 많지 않았지만 그게 경제적인 이유는 아니었다. 88년 전후에 출생한 건 맞지만, 글로벌하다고 말하기엔 영어에 대한 두려움도 많고 해외 경험도 전무했다. 쏟아져 나오는 청년세대담론들을 통해 청년으로서 나 자신의 정체성을 점검해 볼 때 내가 느낀 감정은 소설가 김사과가 느낀 그것과 매우 비슷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위에서 뭔가 규정을 내리고 내려다보면서 분석하기 위해서 이름지은 거라고 느꼈어요. 아니면 사람을 나이로 판단하는 한국사회 특유의 안 좋은 습성 때문이거나,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용도별로 잘 상품화해서 팔아보려는 걸로 보여서 의심했어요.”
(김사과)³⁾

<표 1> 2008~2012년 신문 기사에서 생산되어 온 청년세대 명칭들

| 세대명 | 매체 | 보도일자 | 내용 |
|-------|------|--------------|--|
| 실크세대 | 조선일보 | 2008. 1. 27. | 71년생 이하 젊은 리더들(변희재 주도)로 구성된 실크로드CEO포럼에서 따온 단어, 대한민국 20~30대가 가장 위대한 세대라고 선언함 |
| 후크업세대 | 한국일보 | 2008. 5. 16. | 후크업은 파티에서 우연히 마주친 남녀가 에로틱한 관계를 갖는 것을 뜻하며, 청년들의 문란함을 지적 |
| IP세대 | 동아일보 | 2008. 9. 30. | Interest&Passion(재미와 열정), Independent Producer(독립적 생산자), Innovative Pathfinder(혁신적 개척자), Intelligent Portfolio(똑똑한 재테크족), Intangible |

- 2) 88만원세대론 이후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 양쪽에서 나온 청년세대담론들의 함의와 역학 관계에 관해서는 한운형(2010)의 글을 참고하라.
3) 소설가 김사과가 '20대 세대담론'에 관한 대담에서 20대 작가들에 대한 담론적 규정을 당했을 때의 느낌을 표현한 것이다(김사과·정다혜·한운형·정소영, 2010, 273쪽).

| | | | |
|-------|-------|--------------|--|
| | | | Power(만질 수 없는 파워), Interactive Participation(상호작용하는 참여), Instant Partnership(즉흥적 인간관계) |
| 희망세대 | 동아일보 | 2009. 1. 13. | 대학생 칼럼, '우리를 88만원 세대가 아닌 희망세대로 불러 달라'는 희망을 담았다. |
| 인턴세대 | 서울신문 | 2009. 1. 16. | 2006년부터 독일에서 유행한 단어 |
| C세대 | 중앙선데이 | 2009. 3. 17. | Crisis(위기)를 겪었지만, 사회의 소비를 리드하는 Consumer(소비자) |
| 좌절의세대 | 세계일보 | 2009. 5. 14. | 논설위원이 언급함 |
| 파티세대 | 서울신문 | 2009. 6. 8. | 청담동 클럽파티를 통해 청년들의 문란함을 지적 |
| G세대 | 조선일보 | 2010. 2. 16. | Global의 약자로, 1988년 전후에 태어나 '부유한 환경에서 성장한 세대'를 뜻함 |
| 3C세대 | 매일경제 | 2010. 2. 19. | Confidence(자신감), Challenging mind(도전), Collaboration(협동) |
| V세대 | 동아일보 | 2010. 3. 1. | Valiant(용감), Various(다양), Vivid(생기) |
| V-V세대 | 한겨레 | 2010. 3. 8. | Vancouver-Victory |
| G20세대 | 문화일보 | 2011. 1. 3. | 1월 3일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나온 단어로, 세계를 무대로 뛰고 경쟁을 주저하지 않으며, 창조적 도전 정신에 불타는 젊은이들을 가리킴 |
| 신안보세대 | 동아일보 | 2011. 2. 9. |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의 여파로 6.25의 20대 이후 가장 강력한 안보의식으로 무장한 세대 |
| P세대 | 중앙일보 | 2011. 3. 24. | 젊은 보수, Pragmatic(실용적), Patriotism(애국심), Pleasant(유쾌한), Power&Peace(힘과 평화), Personality(개성), Pioneer(개척자) |
| S세대 | 매일경제 | 2011. 3. 27. | Survival(생존), Specification(스펙), Struggle(투쟁), Selfish(이기), Smart(영민), Specialty(실력), Stand-Up(홀로서는 힘) |
| 삼포세대 | 경향신문 | 2011. 5. 12. | 연애, 출산, 결혼을 포기한 세대. |
| V세대 | 서울신문 | 2011. 9. 15. | LA Times의 Generation Vexed(짜증난 세대) 인용 |
| 파란세대 | 국민일보 | 2011. 12. 8. | Frustrated(좌절), Aim(목표), Risktaking(위험감수), Amusement(재미), Network(네트워크) |
| 축포세대 | 한국일보 | 2012. 7. 28. | 저축포기 세대 |

사실 특정한 세대담론을 거부하면서 그것을 '거짓된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세대담론이 지지하는 출생코호트에 속한 당사자 누군가가 나타나 '나는 아닌데', '나는 다른데' 하면서 의문을 제기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88만원세대론이 이 세대가 최악의 경제적 상황에 처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당사자들에게 “토플 책을 덮고 바리케이드를 치고 짱돌을 들라”는 주문을 했지만, 토플/토플 응시자수는 절대 줄어들지 않는 것은 이런 까닭일 것이다. 많은 청년들은 88만원세대론이 보여주는 현실은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88만원세대에 스스로를 동일시하지는 않은 것이다. 실크세대론이나 G세대론과 같이 현재 20대가 사실은 아주 많은 능력이 있는 세대라는 점을 강조하는 세대담론들이 88만원세대론에 도전하는 것도 이러한 토대 위에서 가능했던 일이다.

그러나 이렇게 쉽게 부정될 수 있으면서도, 서로가 서로의 반박 논거가 되는 식이면서도, 지속적으로 수많은 세대담론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자연스럽게 세대담론의 지속적인 생산을 보장하는 사회적인 구조가 존재할 것이라는 의문을 떠오르게 만든다. 박재홍(2009, 14쪽)은 세대 이름을 생산하는 3대 주체로 대중매체, 기업과 광고기획사, 정치권을 지목함으로써 이러한 의문에 일부 답하고 있다. “대중매체는 시대 풍속과 사람들을 이해하는 방편으로, 기업과 광고기획사는 마케팅 대상의 층화와 차별화를 통한 판매 확대와 이윤 증식을 위해, 정치권에서는 유권자의 분할 포섭이라는 선거 공학적 계산에 의해 신조어 생산에 관심”을 가진다. 전상진(2013)은 역사적인 세대 의미론의 변화를 추적하면서, 세대라는 범주가 전통의 계승의 맥락, 그리고 사회적 변동과 변화의 맥락에서 소환되어 왔음을 밝힌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이 범주가 사회적인 차원에서 이탈하여 특정 세대 내 개인들의 경제적 이익/불이익을 따지는 ‘세대 회계론’의 옷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개인화된 세대론은 “정치가의 해석적 혁신”과도 관련된다.

세대론을 만들어내는 주체들 중에 특별히 이목을 끄는 것은 단연 대중매체라고 볼 수 있다. 기업과 광고기획사 혹은 정치권과 달리 대중매체의 경우 세대론을 만들어냄으로써 노릴 수 있는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이익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정파성이 강한 한국언론의 특수한 성격을 고려한다면 대중매체가 생산하는 세대론이 그들 정파 전체의 이익과 결부되어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말이다.) 그런 점에서, 20대 세대론을 ‘정치적 주체의 기획’의 관점에서 정리한 고덕영(2013)의 논의는 흥미롭다.⁴⁾ 그의 논의에 따르면 많은 세대론은 “청년

4) 고덕영(2013)은 “20대 세대론은 청년세대의 현실을 개선하려는 목적에서 새로운 정치적 주체를 호명하려는 시도로 출발하였지만,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겪는 불투명함에 의해 난항을 겪고 좌초한 여정”이라고 평가한다. 그에 따르면, 20대에게서 새로운 정치적 주체로서의 가능성을 기대하기 힘들어졌다는 사실, 그들이 이미 “신자유주의에 의해 사목”된 주체라는 사실을 선언한 것은 오찬호의 박사학위논문을 개작한 단행본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였다. 그러나 88

세대를 ‘역사적 주체’로 견인하려는 적극적인 전망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러한 관점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세대론의 생산이 사실은 특정 정파의 정치 공학적 이득을 넘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정치적 열망과 관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중매체에 종사하는 문화생산자들과 수많은 대중 (인문)학자들, 그리고 세대론의 수용/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진보 정치적인 열망이 세대론에 그대로 투사되고 있다는 것이다. 20대들이 투표장을 더욱 많이 찾아서 진보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라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20대들이 사회를 조금 더 진보적으로 바꾸어주길 바라는 그런 열망 말이다. 물론 이때 20대들이 투표를 많이 하면 정말 진보 정치에 유리한 것인지, 20대들이 가진 가치관이 정말 새롭거나 진보적인 것인지는 모를 일이다. 청년들이 새롭다거나 진보적일 것(혹은 보수화되었을 것)이라는 언명은 사실이 아니라 주술에 가깝다.

독자들도 이미 눈치 채고 있겠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전반적으로, 세대담론의 무분별한 생산과 유통, 유행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많은 경우 세대담론은 세대에 대한 ‘가짜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전에 세대에 대해 논했던 수많은 논자들도 ‘가짜 세대담론’에 대한 어떤 상(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예컨대, 이동연(2004)은 386세대, 신세대, X세대의 기표는 이데올로기적 허구효과를 생산하며 일부는 과잉 정치화되어서 하나의 상징조작 같은 이미지를 생산한다고 논의한다. 또한 오찬호(2012)에게 ‘20대 바보론’과 ‘20대 당사자 논의’는 완전히 허구적인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세대론 비판도 나름의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세대담론을 허위적인 이데올로기로 보는 이 같은 가정은 세대담론을 이분법적으로 유형화시킨다는 면에서 그 한계를 지닌다. (앞서 예로든 이동연은 N세대, 감성세대, 디지털세대와 같은 세대 명칭을, 오찬호는 88만원세대론은 청년세대의 구체적인 현실과 잘 맞아있는 세대론으로 파악한다.) 특정한 세대에 대한 어떤 담론이 진실에 가깝고 어떤 담론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논자들의 시각에 따라 갈리며, 서로가 서로를 반박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세대담론을 비판적으로 보려는 이유는 조금 더 근본적인 차원에 있다. 요약하자면, 세대담론은 이미 존재하는 실체로서의 세대에 대한 거짓된 이야기를

만원세대에 대해 예언된 암울한 미래가 누군가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가 보여주고 있는 묵시록적 20대상 역시 누군가에게는, 또 20대 모두의 어떤 지점에서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세밀한 관찰 없이 정치적 주체화의 기획이 완전히 파탄났다고 선언하는 것은 또 하나의 ‘과도한 일반화’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세대를 존재하는 것처럼 호출하기 때문에 문제적이다. 박재홍(2009, 21~22쪽)은 “일정한 연령이 되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혹은 유행과 같이 짧게 나타났다 사라지는 현상을 세대현상으로 포장하는 것은 세대 간 반목과 편 가르기만 심화시킬 뿐”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세대현상이 아닌 것을 세대현상으로 분석하는 것이 어떠한 위험성을 내포하는지를 드러내고 있다. 90년대 초중반 ‘신세대 논쟁’ 이후 한국사회에서도 정치권과 언론은 물론이고 일상적인 대화에서까지 세대라는 구분 기준을 통해서 한국사회의 어떤 현상들을 이야기하려는 시도는 매우 일상화되었다. 우리는 다양한 사회정책 담론과 과학 분과에서 ‘세대’가 매우 상이한 방식으로 도구화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Parnes, Vedder & Willer, 2008, 전상진, 2013: 303에서 재인용).

영국의 정치학자인 조나단 화이트(White, 2013)가 사용한 세대주의(Generationalism)라는 개념은 세대담론 자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데 있어 유용한 도구가 된다. 세대주의란 정치가, 저널리스트, 대중적 지식인들이 세대의 중심성을 주장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사회적 것과 정치적인 문제들을 (다른 개념들을 제쳐 두고) 세대의 개념으로 풀어 이야기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그의 논의에 따르면, 세대주의적인 행태가 문제적인 것은 그것이 민주주의의 보편적 개념들과 어긋나거나 그것들을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예컨대, 특정한 출생코호트를 세대로 명명하고 그것 내부의 공통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세대 내부의 다양성을 경시하는 데로 나아가면서 그러한 세대담론의 수용자들을 민주주의적 가치인 ‘다원성의 에토스’로부터 먼 곳으로 데려간다. 세대내 공통성의 강조는 그러한 공통성에서 빠져나가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경험들을 주변화하면서 그러한 개인들을 잠재적으로 억압하는 효과도 지닌다. 세대주의가 가지고 있는 결정론적인 시각도 문제가 된다. 인간을 성찰적인 행위자가 아닌 단순한 인구학적 사실의 담지자로 여기는 것이다.

세대주의적인 세대담론이 비판받고 해체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세대담론을 세대주의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가장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조건은 세대 문제가 아닌 것을 세대 문제로 이야기하는 담론을 ‘세대주의적’인 세대담론으로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을 따른다면, 386세대, 신세대, X세대, 20대 바보론과 같은 세대담론은 물론이고 N세대, 감성세대, 디지털세대, 88만원세대 등의 더 광범위한 세

대담론 또한 세대주의적인 세대담론이 된다. 나는 현재 정치권과 언론, 학계를 막론하고 한국사회에서 생산,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세대담론이 세대주의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이유가 대부분의 세대담론 생산자와 수용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세대'에 대한 이해방식, 즉 세대 논의의 전제들이 이미 세대주의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이 보고서는 우리가 세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갖게 되는 몇 가지 전제 혹은 가정들이 왜 세대주의적인지, 다시 말해 어떤 면에서 세대 문제가 아닌 것을 세대 문제로 위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다양한 수준의 세대담론들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서두에서 언급했던 청년세대에 대한 담론인데, 나는 그 청년세대담론에 의해 지식의 대상이 된 당사자들인 청년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들이 실제로는 세대주의적 가정들에 부합하지 않는 존재라는 점을 밝힐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 나는 청년'세대'가 존재하기는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부터 근본적인 의문을 던질 것이다.) 이는 즉, 세대담론이 진짜 세대 현상에 대해서 논하기 위해서는, 또 메타-세대담론이 진짜 세대 현상을 설명하는 세대담론과 그렇지 않은 가짜 세대담론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세대주의적 가정들을 우선적으로 스스로 해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대주의를 세대 문제가 아닌 것을 세대 문제로 이야기하는 행태라고 정의하려면, 무엇을 '세대 문제'라고 할 수 있는지를 먼저 규명해야 할 필요가 발생한다. 다음 절에서는 현실에서 '세대(Generation)'의 개념이 어떤 의미로 활용되고 있으며, 그중 어떠한 사용법이 사회학적 집단 범주로서의 세대와 맞닿아 있는 것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2) '세대'란 무엇인가?

컬쳐(Kertzer, 1983: 126-127)의 구분을 따르면, 학자들이 사용하는 세대 개념은 다음과 같은 네 개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가족관계/친족계보에서의 위치를 따지는 용법으로서의 세대 개념(generation as principle of kinship descent).⁵⁾

5) 이상길(2000)은 이러한 세대 개념은 일반적으로 일족에게만 적용되지만, 이외에도 '부모세대', '자녀세대'와 같은 용법으로 확장되어 사용될 수도 있다고 논의하기도 했다.

이를테면 조부모와 부모, 자녀가 함께 사는 가정을 3세대로 구성된 가정이라고 부르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둘째, 연령 효과에 집중하여 생애주기 단계에서의 위치를 이야기하는 용법으로서의 세대 개념(generation as life stage). 청년세대, 기성세대와 같이 연령을 의미하는 명사와 세대 개념을 함께 쓰는 경우나, 청소년이나 노년 등을 별다른 세대적 의미부여 없이 단순히 '세대'로 지칭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셋째, 시기 효과에 집중하여 특정한 역사적 시기에 함께 생존한 사람들을 집합으로 묶는 세대 개념(generation as historical period). 전쟁을 겪은 세대와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를 구분하여 전쟁 세대와 탈전쟁 세대로 나누는 것처럼 특정 사건의 경험 여부를 기준으로 인구집단 전체를 구분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넷째, 코호트 효과에 집중하여 상대적으로 동일한 시기에 태어난 출생 동기집단을 강조하는 세대 개념(generation as cohort). 1978~88년생을 IMF세대로 명명하고, 그 이후 출생자들을 촛불세대로 명명하는 것처럼 특정 시기 출생 집단을 연도를 기준으로 구분 짓는 이러한 용법이 코호트 세대 개념에 해당한다.

박재홍(2001)에 따르면, 세대 개념에 대한 명료화에 대한 논쟁은 주로 친족계보적인 용법(첫째)과 코호트적인 용법(둘째, 셋째, 넷째)의 대비에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 오늘날의 담론 체계에서 '세대'라는 기표를 통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친족계보적인 용법을 넘어선 사회적인 세대 용법으로 쓰이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일컫는 세대담론이 전제하고 있는 세대란 코호트적 세대를 의미하는 것이며, 특히 출생 동기집단을 강조하는 넷째 세대 개념(generation as cohort)에 맞닿아 있다. 연령 효과에 집중하여 세대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 예컨대 '20대는 가능성이 많은 세대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할 경우, 그것은 나이가 들에 따라 생애주기 효과에 의해 자연스럽게 변하는 특성에 세대라는 단어를 갖다 붙였을 뿐이다. 특정한 역사적 시기를 직접 체험했는지 여부에 따른 세대 개념은 촘촘한 세대 단절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수사적인 차원에서 사용될 따름이다. 오늘날 청년세대를 지칭하기 위해 곧잘 사용되곤 하는 88만원세대, 디지털세대와 같은 세대 개념은 출생 코호트를 지칭하는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즉, 88만원세대나 디지털세대로서의 현 청년세대는 그 윗세대나 아래세대와는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이 가진 경제적 약자로서의 특성, 친-전자기기적인 특성 등은 시간이 지나도 윗세대, 아래세대와 분별되는 상태로 유지될 것이라는 것이다.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듯, 세대라는 개념은 그 용법이 다양할뿐더러, 코호트적 용법으로 세대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세대를 어떤 의

미로 상징하고 있는지는 천차만별이다. 그렇다면 코호트적 용법으로 세대 개념을 사용할 때, 어떤 경우를 세대 현상에 대한 왜곡 없이 잘 드러내는 세대 개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나는 독일의 사회학자 카를 만하임(Karl Mannheim)의 세대 개념 분류에서 힌트를 얻고자 한다. 만하임이 1928년부터 1929년에 걸쳐 쓴 논문(Mannheim, 1929/2013) 『세대 문제』는 세대에 대한 더 정교하고 사회과학적인 해석의 시작(Jaeger, 1985)이자, 세대의 사회학의 유용한 초석(Edmunds & Turner, 2002)으로 평가된다. 이후의 세대사회학 연구들은 세대 개념에 대한 사회과학적 사용법을 대부분 만하임에게 빚지고 있다. 만하임 이후의 연구자들이 특별히 만하임의 세대 개념 구분을 기각하거나, 이를 눈에 띄게 변형시키거나 정교화한 바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⁶⁾

만하임 이전에도 세대에 대한 논의는 있었다. 세대 개념에 관한 연구 역사를 검토한 한스 예거(1985, pp. 275~276)에 따르면, 세대에 대한 과학적 연구의 기원은 18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역사적 진보의 속도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세대적 변화와 그 속도에 대한 관심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이다. 세대에 대한 초기 접근법은 드로멜(Dromél)과 페라리(Ferrari) 등의 논문에서 발견되는 맥박수 가설(pulse-rate hypothesis) - 세대는 외적인 요인들로 설명될 수 없는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리듬(30년)에 따라 구분된다는 실증주의적 경향 - 과 딜타이(Dilthey)와 핀더(Pinder) 등이 맥박수 가설을 반박하며 주장한 각인 가설(imprint hypothesis) - 비슷한 시대의 개인들에게 청소년기에 전염되는 상대적으로 비슷한 철학적, 사회적, 문화적 가이드라인을 중시하는 낭만주의적-역사주의적 경향 - 로 구분되었다.

만하임은 앞선 세대에 대한 두 연구 경향을 모두 그것이 본질주의적인 접근이라는 면에서 비판하며, 과학적인 방법에 기반한 사회학적 세대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한다.⁷⁾ 그는 짐멜이 정초한 형식사회학(formalen Soziologie)⁸⁾의 관점에서 세

6) 물론 또 다시 만하임을 논하는 세대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만하임의 세대 개념 분류에 대한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도 있다. 나는 다른 논문을 통해서 만하임 이론에 대한 제한적인 수용이 세대 개념에 대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예컨대, 만하임의 세대단위 개념은 집단적 구체성이 강화된 실제 세대를 의미함은 물론이고, 실제 세대 내부에 복수적 세대단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이론적 의의가 있는데, 많은 세대 연구자들이 세대단위 개념에 대한 이해를 집단적 구체성에만 국한시킴으로써 '단일한 세대의 가정'을 한다. 이러한 경향은 세대 현상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세대주의적 오류를 낳는다는 것이 내 주장이다.

7) 실증주의적인 방법의 세대 연구는 세대 연속의 자연적 출발점을 발견하기 쉽지 않으며, 단선적 진보 개념을 옹호하는 증거로 기여하기 때문에 만하임에 의해 비판의 대상이 된다. 낭만주의적-역사주의적 방법의 세대 연구 또한 "사회학적 요소들과 역사학적 요소들 없이 정신적인 것의 지나치게 극단적인 표현을 가정"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Cf. Mannheim, 1929/2013, 21~33쪽)

대현상을 다루는데, 그의 세대에 대한 이론화는 계급 개념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세대관계는 스스로 결정지을 수 없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그러한 지위에 속한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또는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를 떠나 속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자연적 혹은 의식적인 집단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위치현상’이라는 점에서 계급 현상과의 유사성을 지닌다고 보았기 때문이다(Mannheim, 1929/2013, 44쪽).

만하임의 세대 개념 이론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세대 개념을 단일하지 않은 세 개념 - 세대위치(Generationslagerung), 실제 세대(Generationenzusammenhang), 세대단위(Generationseinheiten) - 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는 사실이다. 그는 “세대위치는 실제 세대와 동일하지 않다”(64쪽)고 언급하면서, 단순히 생물학적 속성에 근거한 세대 개념과 거리를 둔다. “역사적-사회적 통일성이라는 공동 운명에 대한 참여”(65쪽)가 있어야만 세대위치에 있는 개인들이 실제 세대로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⁹⁾ 그의 접근법에 의하면, 10년이든 30년이든 어떤 주기가 지나면 새로운 세대가 등장한다는 식의 논의는 세대에 대한 거짓 논의가 된다.

여기에 덧붙여 만하임은, 같은 실제 세대 안에서도 다른 ‘세대단위들’이 존재한다고 언급하며 세대단위를 “단순한 실제 세대가 구성했던 유대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유대”(67쪽)로 정의하였다. 세대단위들은 “다양한 개인들이 공통적인 사건들에 느슨하게 참여하기는 하지만, 주어진 사건 관계를 다르게 해석”(71쪽)한다. 만하임들의 세대단위 개념은 그것이 ‘동시대의 비동시성’을 더욱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¹⁰⁾ 이는 세대에 대한 이해를 수직적 이해에서 수평적 이해로 바꾸어놓는 전환의 의미를 가지며, 동일 세대가 더 분자화되고 구체화된 상태에서 ‘동일 세대 서로 다른 목소리’라는 정치적인

8) 짐멜은 역사적 현상들을 분석함으로써 사회학의 새로운 대상과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데, 그 사회현상의 분석적 방법이 바로 ‘형식’과 ‘내용’의 구별을 통한 사회분석 방법, 즉 형식사회학을 말한다. 이전까지의 정신과학들이 내용의 다양성만을 취한 데 비해, 짐멜은 그것의 기저에 있는 보편적, 반복적, 사회적인 형식을 내용과 구별함으로써 새로운 사회학의 터를 닦았다. (Cf. 김태원, 1999, 885~886쪽)

9) 만하임은 실제 세대의 개념을 세대위치와 구분하기 위해서 농민 청년들의 예시를 든다. “우리는 먼 지역에 떨어져 있어서 엄청난 격변을 조금도, 아니, 전혀 접촉하지 못하는 농민들을 동시대의 도시 청년과 함께 공동의 실제 세대 집단에 집어넣는가? 확실히 아니다!”(65쪽)

10) 만하임은 1800년경의 동시대에 출현한 낭만적-보수적인 청년과 자유주의적-합리적인 청년들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다. “우리가 사회 변화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모든 집단들을 무시한다고 가정한다면, 그러면 이것은 그와 같이 참여하는 모든 집단들이 동일 세대에 속한다는 것을 뜻하는가?”(66쪽) 그리고 이러한 예시를 통해 이러한 세대단위의 개념을 실제 세대에서 분별해 낸다. 그들이 “동일한 실제 세대에 속하지만 두 가지 다른 세대단위들에 의해 결합되어 있다.”(67쪽)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이남석, 2013). 이를 2010년대의 청년세대의 현실 속의 예시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예컨대 20대의 다수가 진보적인 성향인 가운데서도 보수적인 20대 청년들이 등장하는, “한쪽은 진보나 개혁을 역설하고 다른 한쪽은 보수적인 노골적 응변을 외친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하임의 세대단위 개념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그렇다면 ‘세대’는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 같은 질문을 다르게 말해,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세대’라는 명칭으로 칭할 수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은 확실치 않다. 우선 만하임은 세대위치와 실제 세대의 개념을 구분하기는 했지만, 어떻게 세대위치가 실제 세대가 될 수 있는지, 즉 세대 형성의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있다. 만하임은 세대단위의 구성은 상대적으로 작은 폐쇄적 집단에 의해 만들어진다고만 이야기할 뿐, 연령코호트의 총계가 어떻게 발달하는지는 그의 이론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Jaeger, 1985, p. 283).

세대 형성의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 부재는 이후의 세대사회학 연구에서도 말끔하게 해결되지는 못했다. 다만 세대 형성에 관한 기존의 설명방식은 크게 객관주의적 방식과 주관주의적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객관주의적 설명방식이 기존 논의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장에서 세대는 같은 시기에 출생한 동년배의 사람들이 청소년기에 IMF나 4.19, 전쟁 등과 같은 특수한 역사적 사건을 경험하면 세대형성의 계기들이 개개인들에게 각인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과 연구자, 학자들은 세대 개념에 대해 상당히 객관주의적 상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보고서는 상당량의 지면을 활용하여 그러한 상상에 균열을 내고자 한다.

반대로 주관주의적 설명방식은 문화사회학적/해석적 세대연구에서 많이 이루어져 온 접근법인데, 세대의식이 먼저 출현하여 잠재적 세대(세대위치)가 스스로의 정체성의 준거점으로 이를 수용·선택하면서 실제세대로 발전한다고 본다(전상진, 2004, 44쪽).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88만원세대론이나 신세대론, 386세대론 등은 실제 세대가 먼저 형성되고 나서 거기에 붙은 이름이 아니라, 세대를 형성하기 위한 어떤 목적에 의해 세대가 형성되기 이전에 먼저 만들어진 세대의식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실제로 30대, 80년대에 대학을 다녔으며, 60년대에 출생한 세대라는 뜻의 386세대라는 명칭은 당사자들이 학생운동권 세대로 살았던 20대 시절인 80년대에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이 30대 초입에 들어선 90년

대 중후반, 결정적이게는 96년 총선 때부터이다. 386세대론이 미디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논의는 기존에도 많이 연구자들이 언급해 왔다(박재홍, 2005; 심광현, 2010; 이동연, 2004). 주지하듯이 최근 청년들의 현실을 정의하기 위해서 곧잘 논의되는 88만원세대나 삼포세대(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라는 명칭도 동명의 책, 그리고 <경향신문>이 먼저 만들어낸 개념이다.

물론 세대 형성을 설명하는 객관주의적 접근법과 주관주의적 접근법 중 어느 하나가 맞고 어느 하나는 틀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세대 사회학을 꾸준히 연구해 온 사회학자 전상진(2004)은 주관적, 객관적 세대연구를 통합하여야 할 필요성을 주장한다. “실제세대는 객관적 조건인 세대위치의 성숙을 필요로 하지만(필요조건), 세대단위의 세대 구성적 정치적 노동이 있어야 비로소 형성될 수 있다(충분조건)”(46쪽)고 보기 때문이다.¹¹⁾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보고서 전체를 통해서 세대 형성과 세대 현상 일반에 대한 주관주의적 접근법을 더욱 강조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세대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상상이 객관주의적인 접근법 쪽으로 심하게 경도되어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객관주의적인 접근을 통해 세대를 규명할 수 있다고 보는 인식은, 세대주의적인 (메타)세대담론들을 만들어낸다. 청년 당사자들과의 인터뷰 내용은 많은 논자들이 상상하는 객관적으로 생산된 세대가 왜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를 보여준다.

3) 연구의 설계와 보고서의 구성

세대담론이 전제하고 있는 몇 가지 가정들이 실제 현실의 사람들과 어긋나는 지점들을 포착하기 위해, 이 연구는 사람들을 만나는 심층인터뷰(in-depth interview) 방법을 통해 진행되었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가장 많은 빈도로 나타나는 세대담론이 결국 광의의 청년세대담론이라는 인식 하에서, 스스로를 ‘청년’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세대의식이나 세대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청년세대담론의 당사자들인 청년들은 세대담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갖게 되는지를 많은 질문을 통해 알아보려고 했다.

연구참여자의 표집은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연구

11) 부르디외의 계급 이론과의 대비를 통해 세대 이론을 구성하는 것의 가능성이 많은 세대 연구자들에 의해 제기되어 왔는데, 전상진(2004) 역시 부르디외를 통해서 주관적, 객관적 세대 연구 사이의 간극을 메우고자 한다.

자는 ‘청년세대’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 중이며,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가감없이 솔직하게 이야기해 줄 연구참여자를 구한다는 글을 온라인상에 게재하였다. 대학생 집단이 20대를 과대 대표하는 문제와 같이, 연구 참여자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편중될 수 있는 문제를 가능한 한 차단하기 위해 연구참여 신청과 함께 신청자들이 나이, 거주지역, 출신지역, 최종학력, 직업, 정당 가입 여부, 학생운동/시민단체 활동 경험, SNS 이용 용도, 시사관심정도 자기평가, 정치성향 자기평가, 생활수준(계층) 자기평가를 입력하도록 했다. 200명 이상의 신청자들 가운데 특히 정치성향과 나이, 최종학력, 생활수준 등에 유의하여 연구참여자 13명을 표집하였다. 청년세대담론이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점들을 가능한 한 잘 보여줄 수 있는 표본들을 선택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이 표집은 이론적 표집(theoretical sampling)을 따랐으며, 특히 연구참여자들의 다양성을 최대화시킴으로써 연구 과정에서 예외 사례나 변이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나이는 19세에서 31세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기혼자가 1명 포함되었다. 학력은 고졸, 전문대 중퇴, 전문대 졸업, 4년제 대학 재학/졸업, 석박사과정 재학 등으로 다양했으며, 정치성향은 진보와 보수의 비율이 대략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청년(2030)층의 비율과 일치하도록 조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청년 빈곤을 가장 극심하게 겪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블루칼라 노동자 등은 연구 과정에서 확보하지 못했으며, 대면 인터뷰가 가능하지 않은 수도권 외 지역의 청년들을 만나지는 못했다는 점은 표집의 한계점으로 남았다.¹²⁾ 연구참여자들의 기본적인 정보는 <표 2>와 같다.¹³⁾

<표 2> 연구참여자 정보 (심층인터뷰 참여자)

| 번호 | 나이 | 성별 | 직업 | 거주지 | 정치성향 | 생활수준 | 특이사항 |
|----|----|----|------|---------|-------|-------|------|
| 01 | 26 | 남 | 대학원생 | 서울 서대문구 | 진보(3) | 중하(3) | |
| 02 | 30 | 여 | 대학원생 | 서울 서초구 | 진보(3) | 중상(5) | |
| 03 | 28 | 남 | 의사 | 서울 서대문구 | 진보(1) | 중하(3) | |
| 04 | 19 | 남 | 무직 | 서울 마포구 | 진보(2) | 중(4) | |

12)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심층인터뷰 종료 이후 설문지를 작성하여 이메일 서면 인터뷰를 시도하였으나, 회수율이 낮아 충분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13) 연구참여자 08은 설문에는 보수로 대답했으나 실제 인터뷰 결과 진보적인 정치 성향에 가까웠고, 반대로 연구참여자 12는 설문에는 진보로 대답했으나 실제 인터뷰 결과 보수적인 정치 성향에 가까웠다.

| | | | | | | | |
|----|----|---|------|---------|-------|-------|-------|
| 05 | 25 | 여 | 간호사 | 서울 강동구 | 보수(6) | 중상(5) | |
| 06 | 27 | 여 | 대학생 | 서울 용산구 | 진보(2) | 중하(2) | |
| 07 | 30 | 남 | 프리랜서 | 서울 은평구 | 진보(2) | 하(1) | |
| 08 | 31 | 여 | 취업준비 | 서울 영등포구 | 보수(5) | 중하(3) | 기혼 |
| 09 | 21 | 남 | 대학생 | 서울 서대문구 | 진보(2) | 중상(6) | |
| 10 | 27 | 여 | 취업준비 | 서울 관악구 | 중도(4) | 중상(5) | |
| 11 | 24 | 여 | 디자이너 | 경기 고양시 | 보수(5) | 중(4) | |
| 12 | 25 | 남 | 대학원생 | 경기 수원시 | 진보(3) | 중하(2) | |
| 13 | 25 | 여 | 취업준비 | 서울 마포구 | 중도(4) | 중(4) | |
| 14 | 21 | 여 | 대학생 | 전북 익산시 | 진보(2) | 중하(3) | 서면인터뷰 |
| 15 | 25 | 남 | 대학생 | 경기 수원시 | 진보(1) | 중하(3) | 서면인터뷰 |
| 16 | 23 | 여 | 대학생 | 서울 성북구 | 중도(4) | 하(1) | 서면인터뷰 |
| 17 | 24 | 남 | 대학생 | 경기 수원시 | 보수(6) | 중(4) | 서면인터뷰 |
| 18 | 22 | 여 | 대학생 | 경기 수원시 | 진보(3) | 중하(3) | 서면인터뷰 |

인터뷰는 주로 조용한 카페에서 연구참여자 한 명당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의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사전에 연구참여자들에게 이 인터뷰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와 청년에 대한 생각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전달했으며, 실제로도 그러한 내용을 질문하였다. 첫 질문으로는 자신이 태어난 시점부터 20살이 되기 이전까지, 또 20살이 된 이후로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복기하여 이야기해보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추려보도록 했다. 이 질문은 연구참여자 개개인의 세대의식 혹은 정치의식, 세계관 등의 형성 과정을 알아보는 의미와 함께 연구참여자들이 쉽게 인터뷰에 응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라포 형성 단계로서의 의미도 가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연구참여자들이 얼마나 솔직하게 해 줄 것인지에 대한 걱정이 있었으나, 의외로 연구참여자들은 어렵지 않게 자신의 가정사나 경험과 관련해 꺼려질 만한 얘기들을 거리낌 없이 이야기해 주었다. 익명이 보장되는 상황, 그리고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간의 사회적 관계망이 겹치지 않는 조건이 의외로 솔직한 인터뷰 답변을 보장해 주는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연구참여자 개개인이 자신들의 정치 성향에 대해서 스스로 아주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그것의 진실성을 한국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

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등의 질문으로 보완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에게 여러 가지 세대론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거나 세대론적인 시각에서 작성된 기사들을 보여준 후 그들이 그 텍스트를 어떻게 해석하고 소화해내는지를 관찰하기도 했다. 그 외의 구체적인 인터뷰 질문들은 물론 연구참여자들마다 달랐는데, 그중 연구참여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물어본 중요한 질문들을 추려 <부록2>로 수록하였다. 주로 세대의식(혹은 정치의식)의 형성, 다시 말해 개인의 정치 사회화 과정에 대한 질문들로, 독자들은 일반적으로 청년세대담론에서 말하는 세대의식과 자신의 세대의식을 그 형성 계기 등의 차원에서 비교해볼 수 있을 것이다.

보고서는 1장에서 연구의 목적과 이 연구에서 이야기하는 세대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한 후, 2장은 그 소절들을 통해 청년 당사자들과의 심층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의 상상이 만들어낸 현재의 (청년)세대담론들이 공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반박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2장의 각 절은 (청년)세대담론들의 전제 하나씩을 선별하여 구성하였다. 세대 형성과 관련해서는 트라우마적 사건 일변도의 설명 방식, 청소년기에 세대의식/정치의식이 형성된다는 가정에 대해 비판하였다. 세대 구분과 관련해 ‘청년세대’가 ‘기성세대’와 완전히 다른 신인류인 것처럼 논의하는 것, 세대 내부의 차이가 세대 간의 차이에 비해 크지 않다고 보는 가정을 비판하였다. 그리고 3장에서는 이러한 비판들을 바탕으로 궁극적으로 세대의 정치를 비롯한 세대담론이 어떤 위치에서 실패하게 되는지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수많은 세대담론들은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져, 청년들을 희망의 대상 혹은 비관주의의 증거로 여기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세대담론들은 현실의 세대의식이나 세대 현상을 세대주의적인 방식으로 일정하게 왜곡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 세대주의적인 전제와 가정들을 떼어내고, 청년 당사자들의 진짜 목소리들을 통해 세대 현상을 체계적으로 다룰 때에만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미정형의 가능성 같은 것들은 그 실제적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야,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청년 당사자들 한 명 한 명의 진짜 목소리를 세대 이론의 관점에서 들여보았다는 데서 그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그것들을 다 모아도 13명의 청년에 불과하여, 이를 거시적이고 체계적으로 종합하려는 시도는 그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다. 허나 세대 이론의 관점에서 현재의 청년층이 어떠한 세대의식

(혹은 정치의식) 형성 과정을 겪는지, 즉 오늘날의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만들어진, 어떤 존재인지를 고민해 보는 것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이유로, <부록1>을 통해 심층인터뷰에 응한 13명의 청년들의 개인적인 정치 사회화의 과정들을 그들의 생애사 인터뷰 자료를 바탕으로 간단한 자서전의 형식으로 재구성해 수록하였다.

2. 세대론의 틀린 전제들 해체하기

1) (IMF, 촛불이 아닌) 의식 형성의 개인적 계기들

앞서 살펴보았듯, 세대 형성에 관한 기존의 설명방식은 크게 객관주의적인 방식과 주관주의적인 방식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객관주의적인 설명방식이 기존 논의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세대는 같은 시기에 출생한 동년배의 사람들이 청소년기에 IMF나 4.19, 전쟁 등과 같은 특수한 역사적 사건을 경험하면 세대형성의 계기들이 개개인들에게 각인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다. 청소년기에 4.19를 겪은 세대를 419세대, 같은 시기에 유신을 겪은 세대를 유신세대라고 명명하는 것은 세대형성에 관한 객관주의적 접근법에 의해 만들어지는 관습적 세대 명칭의 예다. 최근에는 ‘세월호 세대’라는 말도 언론에서 아무렇지 않게 쓰이고 있다.¹⁴⁾

이러한 객관주의적 세대형성의 관점에서는 일반적으로 현재의 청년세대가 형성된 계기로 1997년의 IMF와 2008년의 미국산소고기수입반대 촛불집회를 꼽는다. 심광현(2010)이 1978~88년생을 IMF세대로 1989년생 이후를 촛불세대로 명명한 것이 대표적이다. 물론 객관주의적 입장에서 세대를 형성하게 만든 트라우마적 사건으로 IMF를 꼽을 때, 그것이 IMF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IMF로 인한 한국사회의 변화, 거기에서 만들어진 신자유주의적인 분위기까지를 포괄하는 상징사건으로서의 IMF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청년세대들과의 인터뷰 속에서 IMF나 촛불집회에 대한 뚜렷한 기억을 찾기는 쉽지 않다. 대부분의 청년들은 IMF나 촛불을 자기의 의식이 형성 혹은 발전된 계기로 짚어내지 못하고 있었다.

크게 없는 거 같아요. 어렵다고는 했었는데 제 스스로 와 닿은건 없는 것 같아요. 학생이었기 때문에. 주변에도 뭐.. 모르겠어요. 농사짓는 분들도 많으시고. 저희는 물론 식당을 하긴

14) ‘세월호 세대’는 어떤 투표를 할까. (2014. 5. 10). 「한겨레」, 2. 신뢰와 ‘세월호 세대’ (2014. 5. 26). 「한겨레」, 34. 슬픈 이름 ‘세월호 세대’와 희망이라는 이름. (2014. 6. 2). 「머니투데이」, 8. [대한민국 혁신 리포트] <1>세월호 세대가 바라는 대한민국. (2014. 7. 18). 「서울신문」, 2. 촛불세대라는 조어를 2008년 이후 88만원세대로 지칭되며 정치에 무관심한 것으로 낙인 찍혔던 20대에 비해 청소년기에 이미 정치화된 세대라는 식으로 학자들이 승인했던 것처럼, 세월호세대라는 조어도 그렇게 승인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했는데 엄마아빠는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그걸 제가 느끼진 못했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08)

연구참여자 08은 1983년생으로 일반적인 한국사회의 세대 분류법상 IMF세대에 속한다. 보편적인 논의에 따르면 청소년기에 IMF를 겪은 연구참여자 08은 IMF에 대한 강렬한 ‘트라우마적’ 기억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또 그것을 통해 특수한 의식이나 엔텔레키를 형성하게 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연구참여자 08은 동시대를 살았지만, IMF에 대한 기억이 뚜렷하지 않다. 가정에서도, 주변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 이러한 경우는 연구참여자들 다수에게서 나타났다는데, 이는 카를 만하임이 구분하여 설명한 세대위치와 실제 세대 개념을 떠올리게 한다. 생물학적인 시간 차이에 의해 구성되는 세대위치는 실제 세대로 발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음... 대전은 뭐 그럴만한, 서울도 아니고 강남강북도 아닌데 대전에서도 어디 출신이냐에 따라 학교 선생님들이 차별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강남처럼. (중략) 아 그런 말을 한 적 있어요. 교감이었나? 학생 애들을 모아놓고 전체 연설을 하는데 니들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취직 얘기를 하는데 니들 중에 서구 애들이나 유성구 애들 얼마나 있냐, 니들 대부분 중구 애들 아니냐 중구 소득계층이 전국에서 어느 정도인줄 아냐, 니들 중에 또 동구 애들도 있지 않느냐 동구 애들은 더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느 동네냐 하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이 나라에서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고등학교 때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xx 복수한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강남 애들은 어쨌고 이런 얘기를 하니깐 내가 선생들 못 떠들게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연구참여자 01)

예를 들어서 내가 의사가 되면서 기초생활보호대상에서 빠졌는데 그 전에는 그걸로 계속 묶여있었고, 묶여 있었다기보다는 그걸로 계속 살아왔고 하니깐 어머니도 원래는 빵 공장에서 일했는데 월급을 안 줘가지고 노동부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기초생활을 하면서 얻어내야되는 부분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어렸을 때 좀 했던 것 같고, 그런 영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사들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사실 나는 뭐 좀 진보적으로 관심이 가는 거는 맞아요. (연구참여자 03)

오히려 연구참여자 청년들이 자기의 의식이나 가치관이 형성되게 된 계기로서 기억하는 것들은 상당히 미시적이고 일상적, 개인적인 계기들이었다. 연구참여자 01의 한국사회에 비판적이고 약간의 진보적인 성향은 학교에서 경험한 사회 부조

리에 대한 반발감으로부터 출발한 것이었고, 연구참여자 03의 경우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한 가정환경에서 노동자 어머니가 일종의 노동 투쟁을 하는 것을 보며 자란 것으로부터 출발한 것이었다.¹⁵⁾

세대형성, 즉 세대의식/정치의식 형성의 계기들이 하나의 상징사건으로 환원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길섭(2010, 125쪽)이 논의를 전개한 바 있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의 한상진 교수는 1981년부터 1989년까지 ‘사회학 개론’ 강의 시간에 학생들에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생애사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그렇게 해서 2,400건을 수집하였고, 그중 이미 성장해버린 필자들의 동의를 얻은 34편의 글을 모아 386세대, 그 빛과 그늘 이라는 책을 발간하였다. 이 자료의 의미는 386세대가 자신들의 세대형성 최초시점의 위치에서 직접 발화하면서 인식론적 자각을 하고 있는 자기고백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 자기고백의 글들을 보면, 386의 세대정신이 ‘학생운동’이나 ‘민주화투쟁’이라는 대표성으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좀 더 넓게는 고등학교 때까지 교육받은 허구적인 고정관념이라는 깊은 늪으로부터 탈주하는 충격적인 자각과 행위가 중요한 매개였던 것으로 보인다.”

계간지 <창작과비평>에 실린 ‘20대 얘기, 들어는 봤어?’ 라는 대담에서도 대담에 참여한 20대들은 각자 상당히 개인적인 계기를 자신의 정치 사회화에서 중요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연세대 총학생회장이었던 정다혜는 아버지가 민중목회를 운영했던 것을 계기로 꼽았고, 김사과와 한운형의 정치 사회화 계기 역시 상당히 미시적이고 개인적인 일들로 기억되고 있다. “일단 IMF를 꼽을 수 있긴 한데, 그것은 지금 와서 되돌아보니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정치적 각성을 일으킨 일은 고등학교 자퇴인 것 같아요.” (소설가 김사과) “인터넷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던 무렵에 고등학생이었는데, 게시판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보고 안티조선운동에 참여하고, 강준만과 진중권의 글을 읽고,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흔히 20대에 대해 얘기할 때 IMF를 많이 거론하잖아요. 그런데 IMF를 20대가 공유할 만한 사건으로 꼽는 것은 다소 단편적인 비평인 것 같아요.” (청년논객 한운형)

IMF 때. 97년, 제가 중1 때예요. 사실 저희 집은 잘 몰랐어요. 막 어렵다고 하고 그렇게 하

15) 연구참여자 03의 경우 일반적으로 IMF세대로 논의되는 1987년생이기는 하지만, 그의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IMF에 의해서 갑자기 찾아온 것으로 보기 보다는 기본적으로 사회 내에 언제나 존재하는 계층 불평등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고 있는데 그냥 경제가 어려운 거구나.. 왜냐면 장사를 했는데 위치도 신논현 지금 신논현 즈음이었었는데 그냥 영향을 별로 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주변 친구들 보면 갑자기 전학을 가고, 진짜 이게 내 주위에 심각한 일인가 보다. 충격은 받았어요. 맨날 뉴스를 보면서 회사가 줄줄이 부도가 나고, 실업자들이 많아지고, 언론에서도 매일같이 방송을 하고, 진짜 못이 박히도록 신용평가에 대해서 듣고, 몇 등급인지 오늘은 몇 등급이구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것들. 잘 알지도 못하던 회사 이름들 평가 기관들 알게 되고. (연구참여자 02)

IMF를 기점으로 그 전까지는 굉장히 유복했지만 그 뒤로는 생활이 상당히 어려워져서 부모님이 두 분 다 일을 하시게 되었고 그러면서 중고등학교는 많이 방탕한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삶에 대해 비관적인 생각을 하지는 않았고 그냥 순수하게 노는 게 너무 좋아서 친구들이랑 계속 어울리면서 놀러 다니며 지냈던 것 같아요. 꿈같은 건 생각해보지도 않았고 공부엔 아예 관심도 없었고, 그냥 공부를 못해도 그때는 부끄러움 같은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06)

물론 연구참여자 02나 연구참여자 06 등과 같이 IMF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IMF를 자신의 인생에서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나 ‘큰 영향을 미친 사건’으로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청년들도 있었다. 그러나 IMF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IMF의 영향력으로 인해 한 출생코호트의 대부분이 특정한 엔텔레키를 갖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대부분 IMF과 세대 관련 논의는 IMF와 이후 등장한 신자유주의가 이들을 ‘경제적으로 정향’시켰다는 데 두면서 이들을 특정한 방식으로 일반화시킨다.¹⁶⁾ 그러나 대부분 이런 식으로 설정되는 IMF와 세대 특성 사이의 인과관계는 그 근거가 빈약하다. IMF세대는 스펙 경쟁과 자기계발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과 동시에 무분별한 명품 소비 등 소비주의적인 소비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설명된다. 경제적 합리성을 가지고 행동한다는 것과 소비주의적이라는 것은 상당히 상호 상충되는 설명인데, 여기에서 객관적인 세대형성에 관한 많은 논의들이 상징사건과 세대 특성의 관계를 얼마나 자의적으로 설정하는지를 알 수 있다. 연구참여자 06이 IMF를 가정환경

16) “1990년대 후반 들어 학생운동이 몰락하고 대학이 본격적인 신자유주의적 취업준비소로 전락하면서 이들의 대학생활은 치열한 경쟁과 무한한 ‘스펙 쌓기’의 장으로만 점철”되었다. “대학입학과 동시에 낭만적인 대학생활에 대한 꿈은 일찌감치 접은 채 학점관리에 들어가고, 자격증이나 토익 성적 등 스펙을 쌓으며, 아예 본격적인 고시준비에 몰입하거나 한다.” 이들의 “객관적 지위는 비정규직 ‘88만원 세대’이거나 사회진출이 유예된 준-실업자이지만, 소비습속만은 상층 부르주아의 행태를 지향하는 세대”다. IMF세대는 “더욱 강화된 신자유주의와 이로 인해 극심해진 생존경쟁 속에서 자신의 안위만을 챙기는 무한이기주의로 경도되거나, 직접 보고 겪은 계급적대의 현실과 절망감 속에서 계급의식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심광현, 2010, 54~56쪽)

을 변화시켰지만, 그 이후 자신은 오히려 ‘방탕하게 생활했다’고 이야기한 것은 IMF와 신자유주의, IMF세대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들에 들어맞지 않는 반례가 된다.

그 때는 애들이 고3때니까 참여는 못 했는데 반에 컴퓨터가 있어서 그걸 텔레비전에 띄울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어떤 애가 소울드레서라는 유명한 여초 카페가 있는데 거기 회원이 있었어요. 개가 항상 거기 들어가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 계속 알려줘서 저런 미친 놈들, 또라이들이 다 있나라고 생각했어요. (Q. 어떤 걸 보고?) 물대포요. 시위라는 게 폭력적이지 않은 이상 폭력을 행사할 이유는 없는데 물대포는 폭력이잖아요. 그걸 행사하는 게 이상한 거죠. 왜 거기서 폭력이 나와야 되는지, 서로 싸운 것도 아니고 서로 의견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굉장히 싫어서 집에 가서 엄마한테도 이야기했더니 공부나 하라고(웃음). 그런 걸 보는데 감정이 엄청 크게 일었어요. 우리가 모두 싸워야 한다, 이런 건 아니고 이런 사건이 있네 이런 생각을 한다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으로는 제가 특별히 행동한 적은 없어요. 생각은 가지고 있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누가 의견을 물어보면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굳이 내가 나서서 표출이나 행동을 한다는 주의는 아니었어요. (연구참여자 13)

그 때는 그런 옛날 그런 시위라기보다는 격한 건 아니고 광우병 시위는 그 때 다 나갔잖아요. 그래서 저도 나갔고 가도 되나? 이런 게 있어서 막 되게 열심히 참여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때 워낙에 사건이 크다 보니 나갔었던 건데 그렇다고 막 불에 타올라서 다른 사람들 하듯이 그런 건 아니었고. 그냥 같이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으면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렇게 제가 주도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기도 하고 그래서 큰 경험은 아니고. (Q.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일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 큰 의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물론 같이 하는 활동이었다는 게 큰 의미였고 그 자체는 저도 그때도 약간 회의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다고 뭐가 될까? 저 사람들이 이걸 보거나 할까? 그런 건 있었지만 어쨌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정도의 성의는 나도 보여야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연구참여자 10)

촛불집회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기억 역시 미디어의 보도와 학자들 사이에서 ‘촛불세대’로 개념화된 존재들의 특성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심광현(2010, 57~59쪽)은 1988년 이후에 출생한 출생코호트를 ‘촛불세대’로 분류한다. 촛불세대는 “2008년 5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열렸던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 때 핵심 동력으로 직접 참여했거나 현장에 참여하지는 않았더라도 최소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당시의 청소년들”이다. 이들은 “사회비판적이면서도 기존 운동권과는 구별되는 감성을 지닌다”. 그런데 촛불집회를 간접적으로 경험한 연구참여자 13이나 직접적으로 경험한 연구참여자 10 모두에게 촛불집회가 아주 특별히 그들의 정치의식이나 세계관을 뒤바꿔 놓은 사건으로 기억되지는 않는다. 보편적인 설명과는 달리 그들이 특별히 정치나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으로 정체화된 것도 아니다. 연구참여자 10의 코멘트는 오히려 촛불집회의 경험이 ‘참여의 무효성에 대한 생각’을 강화시킨 경우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¹⁷⁾

저는 보수적인 게 뭐 새누리당 보수 그런 게 아니고 별로 변화를 바라지 않는 그런 입장의 보수. 그냥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대로 흘러가면 되겠다. 그리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어디 나와서 집단으로 어찌고, 촛불 들고 앉아가지고 그런 거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선동 되어서 그렇게 한다.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도 기억 나는 게 대학교 1학년 때 쯤 이명박 대통령 때 광우병 어찌고 해가지고 광우병 걸린 소를 도축하는데 팔을 한번 쓰기만 해도 안되고 전염될 수 밖에 없고 사람이 전염 된다고 그런 거 선동 돼서 그런 게 아닌 것도 많겠지만 그런 거 보면 아 이런 거 또 그런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근데 복지 정책에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도 많이 언제나 그렇지만 이슈가 되는 게 부자들은 감세 해주고 간접세 이런 거 올려서 서민들은 더 힘들어지고 그런 얘기 들으면 진짜 마음이 아프죠. (연구참여자 12)

연구참여자 12의 사례는 청년들이 탈정치성을 극복하고 사회운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토폴책을 덮고 바리케이트를 치고 짱돌을 들어라’ 라는 이야기 - 청년세대에 대한 386세대의 세대정치 - 가 어떤 역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부자들은 감세 해주고 간접세 올려서 서민들은 힘들어지는” 현실에 “마음이 아픈” 연구참여자 12는 어떤 의미에서 과도한 자유주의적 경제 체제 보다는 복지에 투자하는 사회민주주의적 국가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판단을 통해 ‘선동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면서

17) 독립잡지 ‘(격)월간인여’의 발행인인 최서윤의 글도 촛불집회 이후 사회운동에 청년들이 어떠한 식으로 반응했는지에 대해, ‘촛불세대’ 논의와는 다른 결의 논의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전자의 어르신들은 ‘연대’해야 세상이 바뀌는데 요새 젊은이들은 자기만 안다며 청년들을 구박한다. 하지만 청년은 의문을 갖고 있다. 정말 거리로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건가. 촛불을 희망의 아이콘으로 보는 이들도 있지만 오히려 2008년 촛불집회는 우리 세대에 패배의식과 허무주의를 남겼다.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 외쳤는데 달라진 게 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삶은 여전히 팍팍하다.” (최서윤 (2013, 7, 2). 학생운동, 다른 세계 말 하는 느낌. <주간경향>, 1032호.)

까지 정치적 공세를 펼치는 일부 진보세력을 보면서 자신의 위치를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위치로 설정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상 확인한 것처럼, 한국사회의 현대사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되는 IMF, 촛불집회는 그것 자체가 커다란 사건이기는 했지만, 그 시기에 청소년기를 보낸 출생코호트를 하나의 경향으로 묶어내는 트라우마적 사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같은 경험을 했어도, 청년들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그 사건의 강도를 다르게 기억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것에 영향을 받은 정도 또한 각자 다르다. 그 사건에 대한 생각이나 사고도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서 다르다. IMF세대와 촛불세대라는 객관주의적 세대형성 이론에 기반하는 논의와는 다르게, 많은 청년들은 자신의 정치의식, 세대의식 형성의 근거로 미시적, 일상적, 개인적 이야기를 꺼내고 있었다.

2) 청소년기 이후에도 계속되는 정치사회화

저희 세대는 형제가 많아요. 방이 없어서 심지어는 여자 형제랑도 같은 방을 쓰거나, 부모님과 같은 방을 쓰는 집도 많았거든요. 그 안에서 싸우고 신경질내고, 그렇지만 거기서 공동생활을 배우고, 협동을 배웁니다. 요즘은 어릴 때부터 자기 방을 쓴 애들이니까 협동심이 부족한 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한 집에 살지만, 내 아이하고 나는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개는 국민소득 1만5000달러에 태어난 사람이고, 나는 80달러에 태어난 사람인데, 어떻게 같은 사고를 할 수 있냐구요.

- 주간경향(997호) (2012, 10, 23).

[지승호가 만난 사람] <아프니까 청춘이다> 저자 김난도 교수.

전상진(2004, 43쪽)은 대다수의 객관주의적 세대연구들이 세대형성의 기본적인 계기로 청소년기, 중대사건의 존재 여부, 다른 세대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미고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동시에 그는(35쪽)은 세대연구에서 '청소년기 경험'을 세대형성의 핵심적 계기로 파악하는 성향은 매우 익숙한 것이지만, 전 생애에 걸친 사회화과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오늘날 그러한 전제는 의문시되어야 함을 언급한다. 위에 제시한 서울대 소비자학과 김난도 교

수의 언급은 그것이 특정 경험을 특정 가치관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절대화하면서 세대 차이를 강조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성인이 되기 전인 청소년기의 경험에 의해 특정 출생코호트의 의식 구조가 결정된다고 보는 것도 큰 문제다. 이러한 논리는 인간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지나친 구조 결정주의이기도 하며, 여러 세대가 청소년기를 다른 역사적 국면에서 보냈다는 근거만을 가지고 세대 차이에 관한 지식을 만들어내고 확증하는 메커니즘이기도 하다.

심광현(2010, 28쪽)이 한국사회의 세대구조를 분석하면서 그것의 기준점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지를 보면, 세대 구분과 세대 차이에 관한 지식이 ‘청소년기’와 연관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 나이로 스무 살, 성년이 되는 나이에 특별한 정치, 경제, 문화적 충격을 받았던 것을 세대 구분의 시작점으로 삼았다. 이 시점에 받은 중요한 사회적 충격은 그 세대의 감정구조의 특징을 장기적으로 주형하는 틀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대학생이 되거나 산업현장에서 일을 하거나 하는 청년기에 경험한 사회적 충격은 그 세대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아비투스를 구성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거나 집단적 트라우마로서 오랜 기간 작용하게 된다.”

세대형성 과정을 미시적 계기들을 통해 설명했던 고길섭(2010, 115쪽)도 세대의식 형성의 시기에 대해서는 청소년기를 강조하는 입장을 따른다. 그는 만하임의 논의를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만하임의 논지를 참고하자면, 사회적 세대의 형성기는 대략 17-25세의 시기이다.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는 시기가 17세경이고 그에 따른 의식과 세계관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시점이 25세경이라는 게 만하임의 견해다. 청소년기를 지나 청년으로 성장하면서 하나의 세대로 형성될 수 있는 동기가 주어진다면, 이 시기에 어떤 충격적 접촉을 통해 또래집단의 경험공유가 일어나고 사회-세계에 대한 최초의 인식론적 자각이 급속도로 진행되어, 기존세대의 논리와 충돌하는 낯선 풍경으로 표현될 때 사회적 세대는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교환학생. 그 전까지는 제가 만났던 사람이 굉장히 제한됐던 것 같아요. 다른 세계로 완전히 갔을 때 거기서는 나이대가 스물 여섯 살 이런 형들도 있었고, 서른 살 넘어가는 박사과정 형들도 있었고. 교환학생 시절에 여행도 많이 다녔으니까 여행 많이 다니면서. 만일 우리나라에서 뭐 한다고 하면 대학은 무조건 가야하고, 대기업에 취직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이 정도밖에 선택지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면 고시를 보거나. 그런데 세계 각국 다니면서 아 젊은 애들이 이렇게 살기도 하는구나 저렇게 살기도 하는구나를 보고 문화권에

따라 삶의 양상이 굉장히 많이 변하는구나 이런 것도 깨닫고 뭐 그랬어요. (연구참여자 01)

저도 살아온 지역이 다 보수 쪽 경향이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게 맞겠거니 하면서 살았는데, 사실 관심이 없었고 별로. 근데 대학원에 오면서 교수님들 얘기도 듣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얘기도 들으면서 저것도 맞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이게 꼭 맞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 또 빨갱이 취급을 당하니까. 그 말 자체도 어이가 없는데 그 용어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 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보수를 지지할 수도 있고 진보를 지지할 수도 있는데 그걸 지지한다고 드러내기가 되게 꺼려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면 어디를 지지해도 비난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거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 20대라도 보수를 지지할 수 있고 나이가 들어도 진보를 지지할 수 있는데 그런 사회가, 풍토가 형성이 안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02)

고등학교 때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없는 데다가 경쟁을 시키고 무조건 이겨야 되고 그런 식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렇고 공부를 못 하는 것은 니가 못해서 그렇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나도 왜냐하면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를 한 타입이니까 집안이 안 좋아서 못 했다 이런 건 다 핑계고 니가 공부를 못 해서 그런 거다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나중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거나, 공부를 잘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 내가 특이한 케이스고 대부분 시스템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들고, 나는 내 나름대로 억지로 안정된 직장을 찾으려고 행복을 찾으려고 한 건데 이게 다 적용되는 게 아니니까, 이게 좀 너무 세상을 살기 힘들고 그런 식으로 생각이 좀 들고요. (연구참여자 03)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이 인터뷰를 통해 보여주는 것은, 그들의 정치 사회화, 즉 일종의 세대 의식 형성이 20살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일어났으며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었다. 연구참여자 01은 국내에서 명문대로 손꼽히는 사립대학에 재학 중이다.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도 그가 생각할 수 있는 삶은 대략 그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지향하는 일종의 주류적이고, 매뉴얼적인 삶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외국으로 교환학생을 가면서 자신의 배경과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 특히 나이는 같지만 다른 문화적 환경에서 살아온 ‘외국의 청년’들을 만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삶의 관점들을 상대화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02의 경우는 서울의 강남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사회 문제나 ‘사회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주변 사람들이 거의 없는 환경에서 성장했다. 재수 과정을 거치고, 사회과학을 대학에서 전공하고, 특히 대학원까지 학업을 지속하게 되면서 그

것이 그가 자신의 정치 성향을 다듬어 가는 초석으로 작용하였다. 연구참여자 03의 경우는 청소년기에도 어느 정도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다. 그러나 그러한 정치적인 성향에도 불구하고 그는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일종의 이데올로기를 믿고 공부를 하는 편이었다. 그 자체가 그러한 명제를 증명하는 경우였기 때문이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온 환경에서도, 외고에 진학하고 의대에 진학한 것이다. 하지만 의대 진학 후, 사회과학 동아리 활동을 하고 건강행정활동(농활과 유사한 경향을 지니는 의대 학생들의 사회참여활동)에 참여하고 병원 노조 사람들을 만나는 등의 경험들 속에서 그는 성공은 노력의 결과, 실패는 노력하지 않은 결과라는 기존의 생각을 스스로 재검토해 보게 되었다.

이들의 사례뿐만 아니라 연구참여자 대부분은 20살 이후에 오히려 세상에 대한 태도를 바꾸게 된 경험들을 20살 이전에 비해서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¹⁸⁾ 이는 특히 한국사회가 ‘19살까지는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공부나 하라고 훈계하다가, 20살이 되고 나면 청년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힐난’하는 식의 이분법이 작동하고 있는 사회인 것과도 많은 관련을 맺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후기 청소년기’의 개념은 앞에서 세대의식의 형성이 ‘청소년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에 대한 일종의 반박이 될 수 있다. 전상진·정주훈(2006, 263~264쪽)은 독일 학자 Baacke의 논의를 인용하면서 후기 청소년의 개념을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후기 청소년은 19~25세를 말한다. 후기 청소년 개념은 현대의 성장 조건이 변화하였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중략) 과거에는 경제적이며 사회적 자립이 주로 20대 초반에 이뤄졌다. 하지만 최근에는 자립 연령이 20대 후반이나 30대로 이전되는 추세다. 교육기간이 연장되고, 직업 획득과 결혼이 이후 연령대로 연기되면서, 특히 20세 초중반 집단은 청소년의 특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성장 조건의 변화는 20대 전체를 하나의 연령집단으로 보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후기 청소년 개념은 청년의 청소년화 경향을 적

18) 대학 시절에 오히려 가치관이 진보에서 보수로 넘어갔다고 보고한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대학에 처음 입학 했을때는 상당히 진보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회 여러 분야에서 국가와 대립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훈련소 입소 후 여러 안보 교육을 받고, 그 후에 인터넷에서 선동하는 여러 사람들과 야당이라 할 수 있는 단체들의 정치적인 실수 등을 보면서 차츰차츰 변화 하여 지금은 상당히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중, 고등학교 때부터 생각해오던 꿈이란 것이 변화해서 그냥 졸업 후에 영업이나 하지... 하고 생각하는 듯 가치관이 현실적으로 바뀌게 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 친구관계를 상당히 중시하는 편인데 친구들끼리 대화 할 때에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내가 예전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 기억도 못하는 단계 까지 온 것 같다. 또한 주변인들만 보더라도 대부분이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들의 영향도 크고, 현재 집안사정이 나를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속되는 것이 좋고, 지금의 상황에서 변화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 17)

절히 파악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후기 청소년의 개념을 통해서 청소년기의 개념을 확장한다면, 예컨대 대학 시절에 새로운 가치관으로 정향한 연구참여자 01, 02, 03의 이야기는 후기 청소년기의 의식 형성과 관계되기 때문에 정치사회화가 청소년기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이때의 경험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친다는 기존의 논의를 반박하는 사례가 아니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청소년기의 의식 형성을 절대적인 것으로 강조하는 논리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같은 시기에 같은 경험을 한 같은 출생코호트가 같은 의식적 특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된다는 것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용하면서 세대를 사회학적 개념이 아닌 생물학적인 연령 구분에 따른 범주로 환원시켜버린다는 점이다.

제가 투표를 딱 두 번 해 봤어요. 대통령 선거는 해본 적이 없고, 이번에 총선? 이렇게 두 번 해봤어요. (Q. 왜 투표를 안 하셨어요?) 그냥... 귀찮고?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이 사람을 뽑았을 때 바뀌는 걸 기대하기도 어렵고, 어쩔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면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바뀌겠지 생각 하다가도 잘 행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귀찮은 게 제일 큰 것 같고요. 집 밖을 나가서 투표 장소로 가는 그런 게 좀 큰 거 같아요. (Q. 투표 안하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비판하기도 하는데?) 원래는 그냥 안 할 수도 있지 이거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씩 바뀌겠지 그 생각이 좀 커졌어요. 그래서 행동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 쪽으로 좀 바뀐 거죠. (Q. 어떻게 태도가 바뀌게 됐는지?) 세월호 때문이기도 하고, 남편 때문이기도 해요. 남편은 꼬박꼬박 투표를 하는데 남편이 특별한 정치적 성향이 있어서라기 보다는 자기 권리는 행사해야지 이런 느낌이라서요. (연구참여자 08)

연구참여자 08의 경우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 중 유일한 기혼자이다. 어떤 의미에서 사회에 진출하고, 기혼자가 되고, 부모에게서 독립해서 별도의 한 가정을 꾸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면에서 그는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후기 청소년적 특징’에서 거리가 멀다. 그러나 30대인 연구참여자 08도 아주 최근에 정치적 가치관의 미세한 변화를 겪었다. 투표를 평소에 잘 하지 않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었지만, 지금은 어쨌든 투표는 해야 한다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어 투표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연구참여자 08은 스스로 투표에 대한 효능감을 느끼기 시작한 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단순히 ‘남편의 영향일 수도 있다’고 말할 뿐이다. 사실 가

치관의 변화, 의식의 형성이라는 것 자체가 매우 일상적이고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이러한 과정이 평생에 걸쳐 계속된다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이야기에 불과하다. 교육이라는 것, 그리고 평생교육이라는 프레임은 이러한 관점을 전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세대 논의에서는 이러한 관점이 흐려지고 청소년기에 관해서만 집중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연구자로서 나는 이러한 청소년기의 우선성을 주장하는 세대에 관한 논의에 문제의식을 갖는다.

청년논객 한윤형은 386세대와의 비교를 통해 현재의 20대가 미래에 어떤 세대가 될지는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른다면 김용민 교수 같은 분의 논리가, 386들은 20대에 투쟁을 하고도 이렇게 무력하게 발목 잡혀 있는데 너희처럼 젊을 때부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는 건데,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사회에 진출하고 나서 생각이 달라질 수 있고요. 계기들이 남아 있다고 보거든요. 그분들은 대학 때 운동을 하다가 교수가 되는 것을 표준적 삶으로 설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삶의 정답에 대해 생각이 다르니까요. 지금처럼 팍팍한 세상에서는, 오히려 회사에 입사해서 몇 년 다니다가 이직이나 퇴직한 후에 정치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윤형이 던진 의문은 그냥 희망적으로 이야기해보는 단순한 ‘말’로 볼 수도 있지만, 나는 그의 말이 상당한 현실 적합성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이제 막 사회 초년생이 된 친구들이 기업에서 겪는 수많은 사회 부조리들 속에서 대학 시절에 없던 정치의식을 형성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보았으며¹⁹⁾, 역사 이래 가장 탈정치화된 세대로 불렸던 현재의 30대만 해도 과거에 비해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추세에 있다. 청소년기가 지나고도 세대의 특성 - 사실 세대의 일반화된 특성이 존재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 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가장 쉽게 증명하는 것은, 한윤형이 말했듯 386세대의 사례일 것이다. ‘민주화 운동’ 세대로 진보적이었던 386세대가 시간이 지나서 보수화되어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는 그 현상 말이다.²⁰⁾

19) 물론 모두가 이렇게 된다는 식의 일반화,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이 글이 일반화로 읽히는 것은 연구자가 가장 경계하는 부분이다.

20) 386세대가 정치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상대적인 진보 정치를 지지해 왔다는 세대 효과에 대해서는 노환희, 송정민, 강원택(2013)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지지하는 정치 집단에서 나타나는 세대 효과를 살펴볼 때, 인간의 가치관을 구성하는 보수와 진보의 이분법 안에도 사실은 다양한 차원이 겹쳐진다는 당연한 원리를 설명하는 사례로서 386세대를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신인류가 아닌 청년세대 - 과장된 세대 격차

세대담론은 기본적으로 세대 격차에 대한 담론이다. 어떤 세대는 어떻고, 다른 세대는 어떻다는 식의 논의가 당연히 전제되기 때문이다. 청년세대와 기성세대 간에 가치관 격차가 있고 이러한 세대차이가 세대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논의는 학계에서도 이루어져 왔다. 박재홍(2010, 89~92쪽)은 “기성세대와 달리 젊은 세대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안 보는 편이다. 자신이 좋아하나 싫어하나, 재미있나 재미없나, 자신에게 도움이 되나 되지 않나가 1차적 판단기준이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관점에서 사리판단하려 들지 않는다”고 언급하면서 젊은 세대를 개인주의에 기성세대를 집단주의에 연결시킨다.²¹⁾ “탈이념·정보화세대는 권위주의적 억압에 못 견뎌하고 강한 거부감을 갖는다”는 논의도 이루어진다. 젊은 세대는 탈권위주의적 성향을, 기성세대는 상대적으로 권위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세대 간의 차이와 격차가 실제 존재하는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 혹은 그러한 가치관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편견으로 인해 세대 간의 차이와 격차가 있는 것처럼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즉 이러한 조사들의 설계와 수행, 결과에 연구자의 선입견이 개입하는 것은 아닌지는 명확하지 않다.

박경숙 외(2013)의 세대 가치관에 대한 실증적 조사는 세대 차이가 과장되었음을 입증하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보통 세대담론이나 세대연구가 가정하고 있는 개인주의적이고 탈권위주의적인 젊은 세대와 공동체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기성세대의 이분법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들이 수행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공동체 지향성, 자아 중심적 태도, 권위주의에 대한 태도, 이익 지향성, 성평등 인식 등에서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는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구자들은 오히려 모든 세대에 걸쳐 공동체주의적, 권위주의적 문화가 공유되고 있으며, 능력주의와 이익 지향적인 가치 또한 개발주의 체제 아래에서 모든 세대에게 강화되었다고 진단한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던 조사

21) 그런데 이러한 분석이 정합한 것인지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박재홍(2010)은 세대간 가치관 차이에 대한 실증적 근거로 2009년 한국종합사회조사의 결과를 가져오는데, ‘신입사원 채용 시 실력이 좋은 사람보다 친척이나 친구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낫다’는 의견에 대하여 50대는 16%, 60대는 18% 동의하였고, 40대 이하는 4-7%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가 ‘전 세대에 걸쳐 능력중심주의에 대한 동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대 간에 집단주의-개인주의 의식 차가 있는 것’으로 읽히는 것은 세대주의의 한 예일 수 있다.

항목의 경우에도 그것을 세대 차이로 연결하기에는 그 차이의 크기가 매우 부족하다. 예컨대, 동성 간 결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항목을 보면 20대와 60대 사이에 24.6%의 백분율 간격이 벌어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적 답변이 50%를 상회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것을 세대 차이의 근거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만약 X축에 연령대 대신 정치적 지향성, 학력 등의 변수를 집어넣으면, 사실 이 문제가 단순한 세대 차이나 세대 간 갈등으로 환원되지 않는 사회적인 차이와 갈등의 문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될 지도 모를 일이다.

민영·노성중(2013, 27쪽)은 386세대(40대)와 정보화세대(20대)의 가치, 참여, 커뮤니케이션을 비교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로, “386세대와 정보화세대는 각각 독자적 세대 특성을 나타내기보다는 유사한 ‘시대적 경험’을 공유하는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결론 짓는다. 정보화세대가 앞선 386세대에 비해 특별히 개인주의적이지도, 공동체주의적이지도 않다는 결과가 나왔고, 기존의 일부 논의와는 달리 탈물질주의적 가치를 기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386세대가 정보화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는 물질주의적 가치를 상대적으로 더 내면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역사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고, 지금도 가장 관심있는 분야가 역사인데, 한국 근현대사나 국사 공부를 하면서 아 내가 완전 오른쪽에 설 수는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있고, 또 현실적으로 보수 진영에서 하는 정책들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어린 청년세대니까 그런 점도 있지만, 청년세대 중에서도 경제적 계층이 있는데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독이 되는 정책들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설 수는 없는 거고. (연구참여자 01)

독재와 민주화운동 : 5.18 운동을 가장 중심으로 하여 민주화 운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무고한 시민들과 학생들이 죽었는지 아주 자세히 서술할 것. (연구참여자 18)

이 연구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일반적으로 기존의 세대에 관한 논의들이 전제하는 세대 차이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부분들이 나타났다. 625전쟁세대와 4.19세대, 386세대와 88만원세대(IMF세대), 촛불세대 등을 가르고 그들의 차이를 부각하는 기존의 논법에서는 그들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사건을 그들이

청소년기에 직접 경험한 사건에 한정해왔다. 그런데 연구참여자 01과 연구참여자 18의 언급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은, 경험에는 직접 경험 말고도 간접 경험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의 의식은 형성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책이나 영화, 혹은 교육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는 생각의 기본 전제이기도 하다.

연구참여자 01이 자신을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주체로 상정하는 이유에는 자신이 한국의 근현대사를 공부했다는 사실이 들어가고, 그는 후대에 세 가지 역사만 알려줄 수 있다면 12.12 쿠데타와 5.18, 삼당 합당, IMF를 알려주겠다고 한다. 연구참여자 18의 경우에도 후대에 교육해야 할 세 가지 역사적 사건의 하나로 독재와 민주화운동을 든다. 두 참여자의 이러한 언급은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지 않은 청년 연구참여자들이 같은 질문에 답하는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예컨대, 연구참여자 17의 경우 신라의 삼국통일, 여말선초, 조선말기 개방, 일제침략의 역사를 순서대로 들고 있는데 이것은 특정한 정치의식이 개입된 방식으로 구성되고 선택되었다기 보다는 현재 한국사 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틀을 따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여겨진다.²²⁾

진보적인 정치성향을 가진 청년 연구참여자들이 5.18과 독재, 민주화운동 등의 역사적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그러한 사건들의 영향력 속에서 자신의 의식을 규정하는 것은 출생시기에 따라서 세대를 구분하면서 생물학적으로 세대 논의를 환원하는 것이 틀린 것이라는 또 하나의 증거이기도 하다.

기존의 세대 논의는 쉽게 드러나는, 혹은 편견에 기반한 차이를 근거로 세대를 가르치는 일에 집중해 온 경향이 있으나, 사실 세대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어떤 세대를 다른 세대로부터 분별해낼 만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부터 질문하고 연구하고 측정해야 한다. 즉, 세대의 실재성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세대의 사회학의 기초를 마련한 독일의 사

22) “순서대로 나열해서 신라의 삼국통일, 여말선초(특히 위화도회군), 조선말기 개방, 일제침략과 관련해서 이렇게 총 3가지 역사적 사건을 넣을 것 같다. 대부분의 학생들 인식이 역사적 사료가 그나마 존재하는 삼국시대부터 한국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때의 3국사정과 신라가 통일하기 까지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이 건국되기 까지, 특히 위화도 회군당시에 내용을 넣는 이유는 조선이라는 500년 역사를 가진 단일왕조가 건국된 과정과 그 안에 있는 이념을 배우고 따라서 우리사회에 많이 침투되어있는 조선시대의 사상에 대해 알아 볼 수 있고 우리나라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거같아서 넣기에 적합하다 생각 되었다. 마지막으로 조선 말기를 넣는 이유는 당시의 쇄국정책이 우리나라 발전이 늦어지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쳤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정을 하게 되었다. 개방이 늦어서 어려웠던 상황과 그로인한 일제의 침략을 받게 되고 더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 17)

회학자 카를 만하임은 “모든 연령 집단들이 새로운 세대 엔텔레키²³⁾와 형성 원리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세대들은 이전 세대에 기생하거나 더 어린 세대에 빌붙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한다. 요컨대, 동일한 세대위치를 공유하는 모든 출생 코호트가 실제 세대화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에드먼즈와 터너(Edmunds & Turner, 2002, pp. 16~18)는 세대의 개념을 그 세대의 적극성을 토대로 구별하고 있다. “특정 시기 안에 존재하는 전략적 기회들”에 따라 “객관적으로 호의적인 상황에서 잠재적 세대 의식과 정치적 변화를 위한 이념을 창출할 수 있는” 전략적 세대(strategic generation, 능동적 세대)와 그렇지 못한 수동적 세대(strategic generation)의 개념이 구분되며, 두 종류의 세대 간의 순환 교대의 관점에서 역사적 변동을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세대 개념의 정교화는 모든 세대가 능동적으로 실제 세대가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²⁴⁾

근데 집안에 돈이 있거나 잘 사는 친구들은 그냥 유학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외국에서 애기 낳지 뭐. 나는 한국 사회에서는 안 키울 거야. 그니까 이게 아니면 이거라는 차선책이 존재하는 학생들, 청년들도 있는 반면에, 여기 아니고 내가 방법이 없는 세대들은 자기가 있는 데를 바꿔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성세대들이랑 좀 부딪히는 것 같은데, 기성세대들도, 이건 기성세대와 젊은 층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빈부차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집안의 청년이나 기성세대가 한 그룹이고, 돈이 없는 청년 기성세대가 한 그룹이 되고. 이거는 나이나 세대 차이로 구분하기보다는 사회 계층이나 격차의 그룹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거기서 오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02)

23) 엔텔레키(entelechy)는 만하임이 예술사가 핀더(Pinder)의 논의에서 발전시킨 개념으로, “삶과 세계를 지각하는 타고난 방식의 표현”, 즉 세대 특유의 스타일을 의미한다.

24) 노환희·송정민·강원택(2013, 126쪽)도 출생코호트에 따라서 선거에서 나타나는 세대효과(generation effect)가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언급한다. 요약하면, 어떤 출생코호트에서는 세대 효과가 상대적으로 강하고, 어떤 출생코호트에서는 세대 효과가 약하고 연령 효과(age effect)나 시기 효과(period effect)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각 세대별로 공유한 경험의 강도는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세대가 공유한 ‘경험의 강도’에 따라, 높은 강도의 경험을 공유한 세대에서는 세대 효과가 지배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강도의 경험을 공유한 세대에서는 세대 효과보다 연령 효과가 더욱 우세할 것이라 예측한다. 예를 들어 과거 유럽의 68혁명 세대나 미국의 월남전 반대 운동 세대, 한국의 386 세대와 같이 정치적 저항 운동에 함께한 세대에서는 세대 효과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기타 세대에서는 상대적으로 세대 효과가 약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 “일반적으로 연령에 따른 정치적 성향의 차이는 크게 연령 효과(age effect)와 세대 효과(generation effect)로 구분된다. “연령 효과란 ‘생의 주기 효과(life cycle effect)’로도 불리는데, 유권자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정치적 의식과 행태의 풍화작용(aging effect)을 겪게 된다는 것”을 일컫는다. “세대 효과는 각 세대가 겪는 독특한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경험(‘정치 사회화’의 공유된 경험)으로 생성된 그 세대 특유의 정치적 성향이 일생 동안 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노환희·송정민·강원택, 2013, 116쪽)

연구참여자 02의 위와 같은 언급은 세대론을 어느 정도 기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인터뷰가 기본적으로 ‘청년세대’에 대한 인터뷰를 전제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연구참여자들은 세대론에 입각한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어느 정도 논의를 하다가 결코 세대론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지점들에 대해서 연구참여자가 스스로 인식하게 되고, 그러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언급들이 나오는 것이다. 기성세대와 청년세대가 부딪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러한 사회 갈등이나 의식 차이가 세대 간의 갈등, 차이라기보다는 계급 간의 갈등, 차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위의 언급은 경제적 계급에 따라서 세대 구분이 해체될 수 있음을, 또 어떤 의미에서는 세대(연령) 간의 연합이 가능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와는 또 별개로,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세대 구분이 해체될 수 있고, 세대 간의 연합이 가능하며 이것은 강조되거나 인식, 언급되지 않을 뿐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위의 연구참여자 01이나 18과 같이 5.18을 직접 경험을 하지는 않았더라도 그것을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기억하고 거기에서 자신의 이념, 정치적 의식을 끄집어내는 청년들을 386세대와 정치적 가치관이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연령을 기준으로 범주화를 했을 때, 2030세대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치인을 더 많이 지지하고, 5060세대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치인을 더 많이 지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반대에 해당하는 사례도 양 세대에서 30% 정도에 이르는데 이들을 그냥 다른 세대로 이야기하고 끝내면 되는 것일까? 이미 세대를 가로질러 비슷한 정치적 성향을 지닌 개인들이 정치적으로 연합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보아야 더 합당한 해석일 것이다.

둘 단거 같아요. 그치 않아요? 보수도 진짜 많은 거 같아요. 저는 그냥 당연히.. 당연히는 아니지만 젊은 사람들은 다 진보 아니야?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요새 느껴요. SNS만 봐도 그런 기사에 댓글을 쓰는 사람들을 보면 보수 성향도 되게 만긴 하더라고요. 딱 정의하기는 어려운데... 다 맞는 말인 거 같아요. 도전적이고 버릇없을 수도 있고. 다 갖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주변에 도전적인 사람들이 많거든요? 버릇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도 많이 있는 거 같고. 제 스스로도 바르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어른들한테 어른이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을 때도 있고. 스스로도 버릇없다고 생각하지만 사람 대 사람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연구참여자 08)

나는 기본적으로 세대 간의 차이를 과장하고, 한 세대와 다른 세대를 분별해내려는 담론들이 혈액형이나 별자리 담론과도 유사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점이나 운세와도 비슷하다. 굉장히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럴 듯한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 08의 언급이 왜 그러한 세대 차이에 대한 담론들이 진실인 듯한 느낌을 주는지를 보여준다. 20대가 보수적이라는 담론은 20대 내부의 일부 보수적인 사람들에 대한 경험을 통해 그럴 듯하게 들리게 되고, 반대로 20대가 진보적이라는 담론은 20대 내부의 일부 진보적인 사람들에 대한 경험을 통해 그럴 듯하게 들리게 된다. 20대가 도전적이라는 담론도, 버릇없다는 담론 등도 마찬가지다. 세대 차이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수많은 가설들이 유사 진리로 창조되고 있는 것이다.²⁵⁾

4) 단일하지 않은, 이질적인 세대 내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세대 차이에 관한 많은 담론들은 세대 차이에 관한 편견에 기초해 어떠한 출생코호트(세대) 내의 아주 일부의 사례들을 가지고 그것을 일반화시키는 식으로 담론화된 것들이다. 진상진(2002)은 대부분의 세대개념 사용방식은 특수한 소집단의 일탈적 가치관이나 행동양식을 전체 연령집단의 성원들이 공유하는 것처럼 성급하게 일반화하거나, 일시적인 유행을 마치 특정 세대의 내적인 통일성의 지표로 과장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광석(2010, 82~83쪽)도 특히 청년세대를 둘러싼 세대론 분석에 대한 비판 지점으로, 내적 차이 혹은 세대내 다양성을 무시하는 측면이 존재함을 지적했다.²⁶⁾

25)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노스와 피스크(North & Fiske, 2012)는 연령에 기반하는 편견이 세대 간의 긴장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

26) 몇몇 세대연구자들은 세대의 일면성을 강조하는 논의가 ‘어쩔 수 없음’을 주장하기도 한다. 박재홍(2009, 23쪽)은 세대의 다차원성과 이질성 개념과 ‘단일한 세대의 가정’은 분리해서 보아야 하며, “‘단일한 세대의 가정’을 문제 삼아 그에 대한 논의를 금기 영역으로 지정하면 세대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보다 풍요로운 논의를 제한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세대 내부의 차이가 세대 간 차이에 비해 작은 차이기 때문이라거나(박재홍, 2005), 세대 내부의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대표적 세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오찬호, 2010) 이유에서다. 그러나 어떤 세대를 묶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최소한 세대 내부의 차이가 세대 간 차이보다 정말 작은 것인지, 혹은 10명 중에 7명과 3명이 다르다고 할 때 7명을 대표

앞서 살펴보았듯, 카를 만하임의 ‘세대단위’ 개념을 비롯해서 출생코호트(세대) 내부에 이질적이고 복수적인 세대단위가 존재할 수 있다. 20대의 다수는 문재인을, 50대의 다수는 박근혜를 뽑았지만, 20대와 50대의 각각 30% 정도는 다른 후보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세대에 대한 지식을 구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많은 세대담론은 특정한 출생코호트를 세대라는 용어로 가리키면서 그들을 하나의 스테레오타입화된 정체성으로 고정시키는 식의 논의를 전개해 왔다. 예컨대 김세균(2010)은 촛불세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쓴다. “촛불세대란 2008년 촛불시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새로운 청년세대를 가리킨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가 터졌을 때 집회를 조직하는 등이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공론화시키는 데에 앞장 선 이들은 중-고등학교 학생, 특히 여학생들이었다. 이들은 집회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넘어 신자유주의적 경쟁교육 전반에 대한 비판 등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넓혀 나갔다. (...) 그런데 이들이 촛불집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은 대학에 들어와 신자유주의 경쟁체제에 그대로 포섭된 앞 세대와는 달리 그런 체제에 강하게 저항할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고려대생 김예슬이 대학이 취업준비소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에 항의해 대학을 그만둔 것, 중앙대 등에서 대학의 신자유주의적 개편에 항의하는 학생들의 항의가 지속되고 있는 것 등은 앞으로 그런 형태의 저항이 크게 증대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들의 촛불집회 주도는 앞세대들을 재정치화시키거나 급진화시키는 데에도 커다란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촛불 집회를 보고 이후 대학생들도 촛불집회에 참석하게 된 것, 그리고 촛불집회에 참여한 청년들 중 많은 부분이 진보신당에 입당한 것 등이 이를 입증한다.”

김용민의 20대 개새끼론, 20대 포기론 등이 나오고 이어 촛불세대론이 나오면서 지금의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비해 20대 초반과 10대 후반이 상대적으로 더 정치화된 세대라는 식의 논의가 정설인 것처럼 받아들여져 왔으며, 청년이 다시 정치 사회화되어 진보적 정치 주체가 되었다는 희망을 투사하는 담론들이 도처에서 쏟아져 나왔다. 김세균의 촛불세대에 관한 논의도 그것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러한 인과관계나 상관관계를 증명할 만한 근거가 딱히 존재하지 않으며, 실제적인 근거가 함께 제시되는 경우도 별로 없다. 연구참여 자들과의 인터뷰는 앞서 2장에서 트라우마적 상징사건으로서 촛불집회가 의식 형성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 경우도 많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적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Q. 촛불집회가 2008년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기억 같은게 있으세요?) A. 그거 혹시 광우병? 저는 그거 안 갔는데 주변에 친구가 갔다 왔더라구요. 그거 기억나는데 그 친구 갔다 온거. (Q. 간 사람이 많았어요?) 반에서 2명이었는데. 그냥.. 되게 할일 없다 했어요. (Q. 혹시 촛불에 대한 얘기를 친구들끼리 하거나 그런 건 없었나요?) 얘기 했던 거? 잘 기억이 안 나요. (연구참여자 05)

정치성향 같으면 제가 그쪽은 전혀 사실은 지식이 없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 가족도 그렇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었어요, 말하는 거나. 뭔가 사회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사회에 뭔가 혁신인 것, 그런 걸 불러일으키게 해야되는데, 그게 뭔가 느낌이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았었어요. 그런 캠페인을 하고 슬로건을 내놓는 게 좀... 네, 그랬어요. 잘 모르지만 뭔가 나는 진보적이다 보수적이다 말하는 게 좀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자기도 그런 사람이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 더 이미지가 안 좋아 보여요. 대통령 선거 할 때도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면 공격적으로 서로 다툼을 하는 모습이 저는 보기가 안 좋았어요. 네 오히려 되게 딱 기억에 나는 게 말씀을 하는 거 자체가 좀 조심스러워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자리도 그렇고 뭔가 미팅 같은 게 있을 때 약간 금기어 같은 느낌이 들어요. 상대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편견을 심하게 갖는 경우도 많고 굳이 수면위로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11)

연구참여자 05와 연구참여자 11의 인터뷰 내용은 한 출생코호트(세대) 내의 이질성을 상기시킨다. 촛불집회가 청년세대를 진보적이고 참여적인 정치 주체로 정향시켰다는 식으로 오늘날 청년세대의 이상적인 상을 서술하는 논의에 이들을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이다. 예컨대, 연구참여자 05는 기본적으로 촛불집회가 일어나는 상황에 청소년기를 보냈으며, 촛불집회를 간접경험 했으며, 마음이 있다면 참가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겼다. 그는 촛불집회 이전에도 이후에도 소위 말하는 ‘탈정치화된 청년’의 표상이다.²⁷⁾ 연구참여자 11은 촛불집회 과정에서 ‘소위 진보적’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오히려 그러한 계몽적인 진보에 거부감을 갖는 식으로 미시적 정

27) 물론 이 맥락에서는 논외이지만, ‘탈정치화’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이고, 우리는 무엇까지를 ‘탈정치화’로 읽어야 하는지, 청년에게 정치 참여를 강조할 때 무엇까지를 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청년 정치 참여에 대한 (직접 민주주의에 닿아 있는) 논의들과 거리가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연구참여자 05의 경우에도 직접 민주주의적인 시위, 집회 참여나 노조 조직에는 거리감을 가지고 있지만, 투표는 꼬박꼬박 하는 편이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물음에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어쨌든 사회문제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귀찮으면 투표를 안 할 때도 있다’는 식으로 답변한 연구참여자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치 사회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2010년대의 청년세대의 현실 속에서, 20대의 다수가 진보적인 성향인 가운데서도 보수적인 20대 청년들이 등장한다는 사실은 단일한 세대의 전제를 포기하지 않는 세대론의 관점에서 설명될 수 없는 현상이다. 또한 특정 정치 성향에 맞을 놓고 거기에 맞는 프레임으로 특정 연령층을 보려 할 때 이해가 가지 않는 현상이다. 그러나 20대 중의 일부는 문재인을 뽑고, 일부는 김순자를 뽑고, 일부는 박근혜를 뽑는다는 것은 사실 전혀 이상하거나 비정상적인 일이 아니다.

사실 이게 나도 이거는 내가 좀 되게 다르게... 사실 내 입장에서는 대학교 때도 그냥 과외만 해도 과외를 내가 일주일에 여덟 시간만 해도 백 만원을 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88만원 세대라고 보기는 좀 어렵잖아. 나는 어떻게 보면 고액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88만원 세대라고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 주변에도 사실 내 주변에 88만원 세대로 사는 애들이 별로 없어. 내가 하필 외고를 나와가지고 내 주변 애들은 직장을 구했거나, 직장 안 구한 애들은 집에 돈이 많아서 직장을 안 구해도, 이 나이까지 직장을 구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없는 애들. 집에서 써포트를 다 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며는 그게 막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주변에서 그런 케이스를 별로 안 보니까 좀 많이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 나 스스로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표면적으로 봤을 때도 아니고, 그건 그렇지. (연구참여자 03)

정의로만 보면 G세대네요. 88년 이전에 태어났고, 부유하게 자랐고. 근데 G세대라는 말이, 글로벌이라고요? 근데 왜.. 그럼 제 주변 친구들도 제가 볼 땐 거의 다 G세대인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자라온 환경이 부유할 수는 있지만 지금 그렇게 부를 누리며 사는 친구들은 없어요. 왜냐면 이 세대들 부모님이 아이엠에프를 겪었고, 지금 경제 상태도 안 좋고, 어렸을 때는 잘 살았는지 모르겠으나 중간중간 고비가 많은 집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잘 모르겠네요. 왜 글로벌 세대라고 했는지? 그거는 그냥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무한 경쟁에 속해 있는 애들한테 속해 있는 애들한테 쓰는 말인 것 같은데. (연구참여자 02)

대부분의 세대담론들은 단일한 세대의 전제를 공유하면서 만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대담론은 세대에 대한 진실이라고 볼 수 없다. 진실이 아닌 것은 또 다시 그 지식의 당사자들에게 결코 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나는 인터뷰를 통해서 연구참여자들에게 다양한 세대에 대한 관점들과 지식들을 이야기 해주고, 그것이 자신의 이야기라고 느끼는지 아니면 그렇게 느끼지 않는지를 물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연스럽게 계급, 학력 등을 비롯한 다른 변수들에 따라 나

뉘진 자신의 환경에 맞추어 세대론들을 재해석해 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연구참여자 03은 스스로를 88만원세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성장해왔지만, 어쨌든 의대에 진학했고, 지금은 의사가 되었다. 의대 시절에는 1주일에 8시간만 과외를 해도 한 달에 100만원, 즉 88만원보다 12만원이나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 외고와 의대라는 환경을 경유한 탓에 주변에도 88만원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실제로 88만원세대라는 명칭은 그 숫자가 보여주는 충격 때문에 과급력을 가진 것인데, 이는 비정규직 평균 임금에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에 대한 20대 노동자 평균 임금의 비인 70%를 곱한 것으로 상당히 비과학적으로, 따라서 정치적으로 산출된 금액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 중에서 실제로 88만원만 받고 ‘회사를 다닌다’는 사람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연구참여자 02는 <조선일보>가 만든 G세대라는 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 88년을 전후해서 태어나 풍족한 환경에서 글로벌하게 성장한 세대라는 뜻이 청년세대담론 역시 자신과 주변 청년들을 보면 해당이 되는 듯, 해당이 안 되는 듯 굉장히 애매한 정도만큼만 진실이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세대담론은 세대내 일부의 특성을 추출해서 그것이 세대 전체의 것인 것 마냥 과장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러한 세대담론은 특정 연령코호트 전체를 대표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한정적인 담론이 되고 만다. 그러나 대부분의 세대담론들은 자신들이 특정 세대에 대한 진실을 표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러한 담론을 받아들이고 소비하고 재사용하는 많은 사람들도 그러한 세대담론들의 주장에 공모한다. 많은 연구참여자들은 G세대론은 가짜이지만 88만원세대론은 진짜, 혹은 88만원세대론은 가짜이지만 삼포세대론은 진짜라는 식의 이분법을 그들의 인식 속에서 작동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세대담론이 소비되는 굉장히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²⁸⁾

그런데 이렇게 세대 일부의 특성을 세대 전체의 특성인 것처럼 환원하고 이것을 진실인 것처럼 주장하는 방식은 그 담론이 겨냥하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28) 요즘의 청년들은 스펙 경쟁에 매몰되어 있다는 명제는 일반적으로 참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이러한 명제도 청년층 집단을 과도하게 일반화한 결과라는 논의도 있다. 신광영과 문수연(2012, 81~82쪽)의 발표문은 스펙경쟁에 대한 세대적 해석 자체에 이론을 제기하고 있는 논문이다. 88만원세대론으로 대표되는 세대담론들에 의해 “스펙 쌓기 경쟁은 대체로 세대 문제로 다뤄지고” 있으며, “거의 60만 명에 달하는 한 해 대학 졸업생이 모두 스펙 경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스펙 경쟁은 젊은 세대 모두에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라 특정한 계급의 부모를 둔 젊은 세대의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부모의 경제자본 및 문화자본과 자녀의 스펙 쌓기 실천과의 관계를 논의한다.

있게 하는 효과를 지니기도 하지만, 문화정치적인 역효과도 지닌다. 바로 출생코호트(세대) 내에서 특정한 분파를 과대 대표시키고, 어떠한 분파를 소외시키고 배제시키는 효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예컨대, 대부분의 20대 관련 논의가 서울에 사는 4년제 대학생을 위주로 담론화되고 있다.²⁹⁾

안 들어가요. 박원순 시장이나 언론에서 말하는 그 청년 세대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 대학생 위주의 청년들이죠. 대학생 중심의 사고죠. 딱 보면은 우석훈 씨도 그렇고 대부분 88년 세덴데 다 대학생 청년이에요 대학교 졸업한. 고졸은 뭐, 저도 솔직히 엄연히 말하면 고졸이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 수료니까 명백히 고졸... 쉽게 말해서 모든 방송이 말하는 청년들은, 그들이 말하는 청년은 대학을 졸업한 청년이에요. 고졸은 거기 포함되지 않아요. 정책들이 대부분 보면 대학 졸업한 청년들 위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서울시 뭐 기숙사 사업 같은 게 대표적으로 있는데 대부분 다 대학생 위주예요 그러면 고졸 청년들한테도 주거 문제 심각하거든요, 대부분 대학생 위주예요. 정책이 좀 다변화가 되어야 하는데 너무 하기 쉬운 것만 하는 거 같아요 보여주기 위주로. 딱 눈에 보이거든요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 봐도 대학생 위주의 정책이에요 왜냐하면 그 주거 정책이 어느 정도 분립이 되어야 하는데 서로 양립이 되어야 하는데 이걸 도무지... 약간의 거친 표현 좀 쓸 게요. 하기 쉬운 것만 하니까 별로, 그러면서 매번 기사에서 20대 욕하는데 고졸자한테 물어봤냐고요. 지네가 청년의 대표인 것만항 행세하고 다니는데 대학교 졸업자들이. 개인적으로 전 솔직히 민달팽이 유니온이라고 있잖아요 청년 단체. 대학생들 단체라고 생각했는데 초반에는 대학생들 단체였고 저는 주거권 단체들이 좋게 보이지 않아요. 청년 주거권 단체들. 대학 졸업한 인간들이 하는 거 우리 고졸자들 뭐 어찌라고. 다 대학생 위주의 정책이더라고요. 이걸 좀 약간 심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연구참여자 07)

29) 특정 출생코호트(세대)의 일부 분파가 그 세대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논의된 대표적인 사례는 '386세대'라고 볼 수 있다. 고길섭(2010, 117쪽)의 논의에 따르면, 386세대라는 명칭 자체에 이미 '80년대 학번'이라는 조건을 통해 그들이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지만, 386세대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의 대학진학률을 고려하면 그 출생코호트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은 많아야 20% 정도에 불과하다. "386세대의 형성 과정은 물론 세대정신과 세대효과가 매우 독특하게 전개되었으며, 그 파급효과가 여전히 크고 이미 사회 주도 세력의 하나로 부상해 있다. 그러나 386세대는 시공간적으로 매우 광범하게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86세대'라는 말 자체의 용어법은 제한적인 성격을 갖는다. 보통 386세대는 좁게는 1980년대 반독재 민주화투쟁을 이끈 학생운동세대로 지칭하기도 하고 좀더 넓게 보더라도 1980년대에 대학생이었던 세대를 일컫는다고 할 수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80년의 대졸자가 25세 이상 인구 전체의 7.7%에 불과했고, 1985년의 대학생수가 120여만 명이었으며, 1980년의 고등교육기관(전문대학, 교육대학, 대학, 각종학교 포함) 취학률이 11.1%(1996년의 경우 36.8%)에 불과했으니 그 이후 증가분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386세대'라는 말 안에는 대다수의 20대 청년세대가 배제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386세대는 1980년대 중반께에는 '백만학도'라는 이름으로 대학생집단 스스로를 호명하며 세대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었음에도 전체 청년세대로 보면 소수에 불과했다."

연구참여자 07은 이렇게 세대 내의 특정 분과가 담론적으로 과대 대표되는 현실에 대한 큰 불만을 가진 경우라고 할 수 있겠다. 물론 그가 언급하고 있는 청년단체인 ‘민달팽이 유니온’이나 청년 관련 주거 정책들이 모두 다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느끼는 담론적 현실이 대학생만을 청년 주체로, 청년 정책의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처럼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 이러한 그의 언급은 세대를 이야기할 때, 또 세대론을 바탕으로 한 정책을 수립할 때 사실은 세대 내부의 이질성에 대한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세밀하게 세대 내부를 바라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상기시킨다.

3. 세대담론이 실패하는 지점들

1) ‘세대의 정치’의 한계

한국사회에서 ‘세대의 정치’가 화두가 된 최초의 시점은 2000년대 초반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전까지 한국의 정치에서 선거공학은 지역주의적인 계산을 통해 이루어진다고만 여겨져 왔으나, 당시 노무현 후보가 경선을 통해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과 대선을 통해 이회창 후보에게 승리하는 과정에서 세대 변수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지닌 노무현 후보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2030세대의 힘에 돌리게 된 것이다. 이후 한국사회의 선거나 정치를 설명할 때 세대 변수는 빠질 수 없는 것이 되었고, 이는 2012년의 대선에서 정점을 이루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세대의 정치’를 일종의 전략으로 주장해 왔고, 청년들에게 진보적인 정치 주체가 될 것을, 집회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담론들이 나왔던 것도 ‘세대의 정치’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심광현(2010, 68쪽)의 글은 한국사회의 소위 진보적 정치집단이 ‘세대의 정치’ 전략, 그리고 청년세대에게 걸었던 기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글이라고 생각한다. “2014년이 되면 5.18세대가 사회의 주역이 되고, 유신세대는 퇴장하며, 그 뒤를 이어서 6.10세대가 오고, 이들 세대가 사회의 중추를 관장하는 기간이 무려 12년에 걸쳐 지속된다. 그리고 2014년이 되면 촛불세대가 26세가 되고, 2024년에는 사회적 생산의 주 역할을 담당하는 36세가 된다. 이는 곧 2014년을 전후로 해방 60년 동안 개발독재와 이데올로기적 보수화의 주축이 되어왔던 6.25세대와 개발세대가 퇴장하고, 민주화와 이데올로기적 진보의 주축이었던 386세대와 이들의 자식 세대인 촛불 세대가 사회의 주역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대 구성의 교체로 인해서 한국사회가 조금 더 진보적인 분위기로, 혹은 진보 정권의 집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바로 청년세대를 둘러싼 ‘세대의 정치’의 실체에 다름 아니다.³⁰⁾

그러나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모두가 알고 있듯이 2012년에 있었던 두 번의

30) 고덕영(2013)은 20대 세대론의 계보를 ‘정치적 주체의 기획’이라는 관점에서 정리해 나간다. 88만원 세대론을 비롯해 그 이후에 청년세대에 대한 담론을 유포하는 주체들이 탈정치화되어 가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청년들의 탈정치화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핵심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거에서 야권이 처참하게 패배하면서 진보 세력이 행했던 이러한 세대의 정치는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후 많은 분석이 쏟아져 나왔다. 기본적으로 대선 당일 (실제 투표율은 82.6%로 나왔지만) 예측 투표율에서 50대가 89.9%라는 수치를 나타내면서 오히려 청년층에 맞서 보수 장년층이 결집했기 때문에, 세대의 정치가 세대의 정치에게 패했다는 식의 해석이 나왔다. 그리고 현재의 청년세대가 사실 진보의 기대만큼 진보적인 세대가 아니었다는 식의 논의들이 나왔다. 고덕영(2013)에 따르면 청년들을 정치 주체화하기 위한 기획은 파탄났으며, 이는 오늘날의 20대가 신자유주의의 물결 속에서 학벌주의 의식이 깃든 일종의 ‘괴물’이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오찬호(2013)의 논의에 기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들 또한 어느 정도의 논리적 정합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나는 세대의 정치 자체가 매우 논리적 허점이 큰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앞서 2장에서 보았던 세대론의 틀린 전제들을 세대의 정치 논의가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촛불집회로 인해서 청년세대가 예전에 비해 진보적이 되었다고 객관적인 파악 없이 주관적 희망을 투여하여 단정짓거나, 이미 이질적이었던 청년세대 내부의 정치의식 스펙트럼을 보지 못하는 오류를 저지르는 것이다. 인터뷰를 통해서 연구참여자들은 왜 세대의 정치가 그 이상대로 성공할 수 없는지를 드러내었다.

(Q. 본인이 88만원 세대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럴 수는 있지만 그건 자기가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막 삼포세대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그 와중에서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다 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사실 그계 돈 때문에 나온 말이잖아요. 연애를 못하는 게 돈이 없고 공부를 못해서라고 하는데 꼭 돈이 많아야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변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변명처럼 느껴져요.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아직 직장인이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Q. 주변 사람들 중에 88만원 세대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그 정도로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 거밖에 돈을 안 주면 노동착취 아닌가요? 물론 모두가 대기업을 목표로 하지만 모두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수능을 봐도 모두가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듯이 말이죠. 중소기업에 들어가거나 다른 일을 해도 되는데. 아르바이트를 해도 88만원보다는 많이 받잖아요. 그것도 자기가 원하는 일을 찾지 못해서가 아닐까요? 감이 잘 안 와요. 친구들이 직장 얘기를 하지 않는 건 아닌데 그런 수익 얘기를 하지는 않아서 제가 모르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06)

앞서 한 번 언급한 바 있듯이, 88만원세대론의 ‘88만원’이라는 수치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계산된 것이다. 사실 20대에 대해 정말 이야기하고 싶었다면, 20대 임금의 평균치를 계산할 수도 있었을 테고, 사분위수 정도를 제시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88만원이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 비현실적인 증거는, 최저임금에서 발견되는데 2014년 기준 최저임금이 5,210원이기 때문에, (물론 최저임금도 지급되지 않는 근로현장도 많지만) 최저임금만 지급받는 곳에서 8시간씩만 일해도 주휴수당 등을 합쳐 88만원보다는 확실히 많은 임금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다. 88만원을 받는 사람도 찾기 힘들뿐더러, 자신이 88만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

88만원을 받는 청년들이 실재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88만원세대론은 애초에 “토폴책을 덮고 바리케이드를 치고 짱들을 들라”는 식으로 청년들을 정치적 주체로 소환하는 기획이기도 했는데, 그 이유는 너희 세대는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는 88만원세대로 전락할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전제에 동의할 수 있는 20대가 실제로 많지 않다는 것이다. 연구참여자 06처럼 88만원세대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별 감흥이 없는 경우가 오히려 대부분일 수 있다. 그렇다고 06의 주변 친구들이 대부분 청년 중에 상류층인 것도 아니고, 그는 주변에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친구들도 있으나 그들도 월 150만 원 정도는 받는 것 같다고 이야기할 뿐이다.

세대내 차이를 보지 않고, 세대의 실재성을 보지 않고, 일단 세대를 묶어 놓고 이야기하는 세대론은 생각보다 별 효과를 지니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현실이 이런 데도 왜 정치에 참여하지 않느냐, 너희는 ‘개새끼’고 너희에겐 ‘희망이 없다’는 식의 힐난을 하고 아무리 계몽을 한데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현실이 아니고, 최소한 그것은 당사자들이 바라보는 현실과는 거리가 크기 때문이다.³¹⁾ 오히려 20대가 아니라 실제로 88만원을 받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직화해보려고 했다면 그것이 조금 더 정치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었을까.

약간 비속어 써도 편집해 주세요, 말도 안 되는 개소리입니다. 욕 하는 사람 없었죠? 개소리

31) 이와 관련해 집단구성의 노동이 어떤 조건 속에서 그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집단은 만들어지고 구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들의 임의적으로 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구성노동의 성공가능성은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낼 수 있는 사회적 대상들 내부에 분산이 적을수록 커진다.” (전상진, 2004, 45쪽에서 재인용)

라고 한 이유는 뭐 우리보고 짱돌을 들어라 하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이나 하는데 책 팔아먹으려고 별 지랄을 다 하는데, 먹고 살기 힘든데 뭐... 88만원 세대 저는 대학생 담론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해당 없음. 고졸도 뭐 그 만큼은 버는데. 뭐 88만원 세대? 뭐 이런 거죠 386 세대들이 지들이 못한 거 청년들한테 떠넘긴다. 지네들이 못 싸워가지고 이명박 박근혜 나왔으면서 우리보고 나와서 싸우라고 사지로... 딱 보면 그래요 밖에서. 청년들이 나서야 된다 그러는데. 개소리 하고 있네. 니네가 제대로 못 싸워서 대통령 박근혜 세웠으면 너네가 책임을 져야지 왜 우리한테 떠넘기냐. 왜냐하면 청년들은 적응해서 살면 그만이지요 어느 정권이 됐든. 우리 밥만 안 굶으면 돼요. 진보 정당... 청년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그런 거? 그러면서 교묘하게 위장을 한 거죠 담론이. 일어서 청년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한다, 장밋빛으로만. 우석훈 선생이 책 팔아먹기 위한 교묘한 글. 말도 안 되는 담론이죠. (연구참여자 07)

게다가 세대의 정치는 연구참여자 07과 같은 청년들에게 ‘특정 세대에게 책임 떠 넘기기’라는 식으로 해석되고 있기도 했는데, 실제로도 그런 측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된다. 항상 진보 진영은 2030세대의 정치 참여를 강조했고, 미디어의 논의에서도 2030세대의 투표율이 높아지면 야권이 승리한다는 식의 공식이 논의되어 왔다. 그렇지만 그러한 담론들에서 이야기하지 않았거나, 그러한 담론들이 놓쳐버린 것이 있다. 선거예측이나 선거공학적 전략을 세대 변인과 관련짓는 이와 같은 세대담론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2030세대를 보수 성향의 후보가 설득할 수 있을 가능성이나, 반대로 5060세대를 진보 성향의 후보가 설득할 수 있을 가능성이다. 애초에 세대 변수를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수로 둔 상태에서, 세대 내부의 정치 혹은 세대를 초월하는 정치를 불가능성의 영역에 두는 것이다. 2012년 선거 패배 이후에 야권이 2030에 집중한 나머지 중장년층을 공략하는 데 소홀했다는 식의 논의가 나왔지만 사실 그것은 너무 뒤늦은 것이었다.

나는 세대의 정치가 성공하기 위해서, 혹은 최소한 지금과 같은 허무맹랑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성주의 운동의 변화 양상을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초의 여성주의는 남성과 여성의 이분법상에서 여성 전체의 단일한 성격을 강조했으나, 이후 흑인 여성 운동 등의 등장과 함께 여성 내부의 다양한 차이에 주목하는 식의 여성주의 이론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최근의 여성주의 운동은 교차성(intersectionality)에 주목하고 차이의 정치나 정체성의 정치보다는 횡단의 정치를 논의한다(하기 시작한지도 꽤 오래되었다).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것을 정치로 끌고 갈 때도, 세대 내부의 이질성을 놓쳐버려서

는 안 된다는 것이다.

2) 세대담론의 세대화 효과, 그리고 세대화의 역효과

최초에 이 보고서는 ‘세대담론의 세대화 효과’에 대한 일종의 이론적 관심에서 출발했다. 세대형성의 과정에서 기존의 많은 논의들이 트라우마적 사건을 청년시기에 함께 경험한 출생코호트들이 비슷한 가치관과 세대의식을 가진 실제 세대로 정향된다는 식의 객관주의적인 설명을 반복해 온 것에 대한 대안적 설명을 찾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고 세대담론은 그러한 대안적 설명을 위해 주목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이 연구에 소환되었다. 처음에 이 연구를 시작할 당시 연구자로서 나는 세대담론들이 세대를 형성시킨다고 생각했고,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만들어져 온 청년세대담론들이 오늘날의 청년세대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냈는가의 문제가 나의 관심사였다. 예컨대, 88만원세대론이나 삼포세대론은 진보적 청년들을 만들어내고, G세대론이나 실크세대론은 보수적 청년들을 만들어낸다는 식으로 말이다. 고길섭(2010, 114쪽)을 비롯한 학자들이 세대담론에 대해 이야기해 온 바도 그러한 문제의식을 발달시키는 데 영향을 주었다. “세대는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바, 계급이 계급투쟁을 통해서 형성되듯 세대 역시 세대담론을 통해 형성된다.”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아쉬운 건 누군가 이 문제를 해결해주었으면 좋겠는데 보수도 진보도 오히려 이를 심화시키고 있는 거 같다. 보수와 진보의 지지층이 노년층과 청년층으로 양분되어서 자리 잡아버렸다. 보수는 계속 노년층에게 잘 보이는 정책을 가져오고 진보는 청년층한테 그러고. 그러다보니 세대 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연구참여자 09)

세대차는 진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인구가 계속 노령화되다 보니까 원래는 젊은 세대가 대체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돌아가시지 않으니까 그 분들이 계속 남아서 기득권을 쥐고 있는 거죠. 여전히 우리나라는 장유유서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어른이 말하면 들어야 하는데 너희는 왜 안 듣냐는 식으로. 그래서 요새 세대갈등이 굉장히 심하죠. 그런데 이젠 되게 당연한 것 같아요. 이런 결과가 나온 게 2~30대가 아무리 보수가 많아졌다고는 해도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대부분이고, 5~60대는 안정을 추구하니까 자기

들 기득권을 위해 보수당에 투표하는 게 당연한 거니까요. 젊은 애들 층에서는 내가 그걸 갈아엎고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거창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극화가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긴 한데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13)

물론 처음 생각했던 가설대로 세대담론의 세대화 효과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연구참여자들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2030 세대와 5060 세대의 투표 성향이 같린다는 사실을 적어놓은 기사를 읽게 했을 때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위에 인용한 연구참여자 09나 연구참여자 13과 같이) 2030에서도 박근혜를 찍은 사람들이 30%를 넘고, 5060에서도 문재인을 찍은 사람들이 30%를 넘는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한국의 선거에 대한 세대담론들이 청년은 진보, 중장년은 보수와 같은 관념을 어느 정도 통념으로 고착화시켰다는 것의 증거로 여겨진다.

그러나 실제로 청년 연구참여자들을 인터뷰하면서 알게 된 것은 오히려 1) 청년들이 세대담론에서 세대적으로 해석될 문제들이 세대적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언급하는 모습들과, 2) 세대담론으로 인해 오히려 세대내, 세대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1)은 세대담론의 세대화 효과가 달성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 2)는 그것이 달성되더라도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되게 방금 얘기한 거랑 삼포 세대랑 너무 대비되는 얘기라서 조금 의아하기는 한데. 그걸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거든요? 어떤 표본을 잡고 명칭을 붙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창조경제를 위해서 누군가 만들어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도 있네요. 지금 물론 되게 오히려 반항심에 막 우리끼리 잘해보자, 이런 경우도 많아요. 창업하는 것도 지원되니까 주변에 보면 그런 것도 하고, 자기들끼리 뭘 하기도 하고. 정말 능력 있는 애들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제 뭐랄까.. 그걸 자유롭게 표현하는 만큼 자유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활동들이. 이렇게 P세대라고 개척적이고 이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근데 워낙에 그 앞 단어들이랑 대비가 돼서 처음 든 생각은 되게 의아하다는 생각이 큰데. 이거는 사실 옛날에도 무슨 세대, 무슨 세대, X세대같이. 그런 것처럼 사실 성향은 있겠지만 그게 그 세대만의 성향이 아니라 그 세대가 주변 영향 때문에 만들어진 현상이 더 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들 다 비슷비슷하죠. 몇 백 명, 몇 천 명 하나의 성향으로 묶을 수도 없는 거죠. 이런 말들은 어느 나이 대에 붙여도.. 2000년대나 1900년대 붙여도 별로 그렇게 클 것 같지 않아요. 딱 지금 애네가 이런 것 같아 이러는 것도 이상한 것 같고. 이런 게 두드러지니까 이렇게 뽑아서 쓰기는 한데. 지금 기사 검색, 분석 이런 거 한다고 했잖아요. 20년 전,

30년 전 기사도 마치 어제 기사 같아요. 변한 것도 없고, 들고 돈다고 싫을 정도로. IMF때 청년실업, 고시병 이런 거 나왔던 거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고 기사 내용이나 제목 똑같고. 그 때 어려웠던 거 지금 안 되는 거 똑같고. 그런 거 보면.. 물론 요즘은 사람들이 분석하고 만들어내고 그런 말들이 회자되고 공감을 많이 얻는 부분도 큰데 어느 세대라고 갖다 붙여도 공감이 되기도 안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구참여자 10)

쉽게 되진 않겠지만 기초연금은 자기 돈이잖아요. 세금이 아닌 국가를 위해 쓰라는 돈이 아니고 자신의 앞으로의 노후를 위해서 그 돈을 세금처럼 쓰겠다는 건... 40조원의 돈이 투입이 되고 유지 관리가 몇 조 씩 드는 돈인데 그런 돈을 더 아끼고 진짜 재벌들한테 비리 없이 깨끗하게 돈을 받아 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진짜 세금 내는 사람들은 거의 못 버는 사람들이 내는데 진짜 잘 버는 사람들은 잘 안내잖아요. 그걸 제대로 받고 그걸 제대로 쓰면 훨씬 더 밝게 될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04)

청년이 100%라 치면 연금을 안 내는 청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40대에게, 지금의 아버지들 있잖아요 3, 40대 초반의. 그 분들한테 짐 없혀주는 거지 전혀 20대 30대해당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회에서 중심적 세금을 내는 세대 층은 그 층이잖아요 40대 층. 이 기사는 이해가 가지만 이걸 전혀... 제대로 직장 다니는 청년이 얼마나 되겠어요 지금, 제대로 연금을 낼 수 있는... (...) 허리는 휠 수 있겠지만 이걸 좀 심각할 수도 있는데 오로지 너무 청년들한테만 떠넘기는 느낌? 왜 그렇게 분석했냐면 이게 혜택이라는 게 지금의 청년들이 지금 청년들 한 45%에서 30% 이상이 비정규직인데 세금을 예를 들어서 그 청년들 중에도 멀쩡한데 회사 다니는 게 얼마나 될지 그건 모르잖아요. 이렇게 혜택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 때, 이런 혜택을 받는다는 기준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멀쩡한 직장이나 세금 사대보험 제대로 된... 많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허리가 휘는 청년이. 왜냐하면 제대로 된 세금을 어느 정도 낼 수 있는 게 되어야 허리가 휘는 건데 이 이론이 성립하려면 멀쩡한 직장 사대보험이 되고 괜찮은 회사란 기준은요 회사가 안 망할 정도로 우리 월급이 통장에 꽂히느냐, 매월 20일이나 10일에, 그런 기준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허리 휘는 청년이 최소화될 수도 있다. (연구참여자 07)

위에 길게 인용한 연구참여자들의 인터뷰 내용은 그들이 세대적으로 해석된 담론들이나 자료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 연구참여자 10은 다양한 세대담론들이 같은 연령대에 대해 설명하면서도 상호 간에 모순되는 이야

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에서 의아함을 발견한다. 그리고 청년에 관한 논의가 마치 지금 시기에 있어서는 이 시기의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세대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자신이 옛날신문 기사를 검색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보았던 과거의 신문기사들을 보면 과거의 청년들에 대한 기사와 현재의 청년들에 대한 기사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청년세대에 관한 논의가 사실 세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언급한다.

연구참여자 04와 연구참여자 07은 세대 간 회계에 관련된 기사를 읽고 답을 하면서 세대론적 해석을 빗겨 가는 다른 해석을 내놓는다. 지금의 연금 체계에서 청년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장년층은 이익을 본다는 식의 세대 간 회계를 담은 기사였는데, 먼저 연구참여자 04는 오히려 연금이 세대 간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복지 예산 자체를 늘려야 한다는 대안을 이야기한다.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정치성향을 가진 연구참여자 05는 어르신들도 전쟁을 겪고 산업화 시대를 살면서 대한민국에 많은 기여를 하신 분들이니까 충분한 연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들의 대안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타당한 것인지는 논외로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들의 대안은 경제/회계적인 문제 역시 세대 간 갈등을 피해갈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는지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지니는 것 같다.³²⁾

연구참여자 07은 대학을 다니지 않았고 현재 실업 상태의 청년인데, 그는 연금에 대한 논의가 청년과 중장년층간의 세대 대립적인 프레임으로 이야기되지만 사실상 제대로 된 직장을 다니면서 연금을 꼬박꼬박 낼 수 있는 청년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계급적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다양한 포인트에서, 세대담론을 이야기하면 그것이 세대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답변하는 식의 패턴을 보여주었다. 세대담론들의 진실성을 의문시하는 것은 기본이었다.³³⁾

32) 세대 회계에 관한 담론들이 실제로 어떠한 식으로 세대 간 분배의 현실을 호도하거나 과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로는 전상진(2013)을 참고할 수 있다.

33) “사실 이거를 되게 권장을 하고 있지만, 막상 이렇게 하면은 되게 욕을 먹는, 오히려 막상 회사나 그런 데서는 저거를... 말과 행동은 다르다고 생각이 드네요. 면접도 그렇고 오히려 자기 개성이 드러나면 되게 단점이 된다고 인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 주변은. 지금은 제가 이제 그런 시선을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일도 있고, 그래서 머리 색도 그렇지만 한 때 취업 준비할 때는 일단은 머리 색이나 그런 것부터 어른들 보기 좋아 보이는 걸로 탈바꿈을 했었고요, 성격도, 질문지 리스트도, 아 저희 같이 창업 팀에 일하시는 남자 분이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이력서 써주는 그런 거였어요. 그런 게 되게 좀 만연하더라고요. 자기 소개 이력, 자기의 어떤 경험이나 그런 거는 자기 입을 통해서 나와야 하는 건데 그거마저도 좋아 보이는 걸로 거짓말

화가 나죠. 20대 투표율도 화가 나고 5,60대 들의 꼬장이라고 해야되나? 하는 것도 없으면서 투표권을.. 뽑을 거면 알고 뽑든가. 이때까지 뽑아 왔던 사람들 뽑고 1번 뽑고 2번 뽑고 이게 그게 그 사람들이 살아온 거니까 크게 뭐라할 수 없는데. 제일 큰 문제는 2,30대가 자기가 앞으로 살 공간인데 자기가 살 나란데 투표율이 그래도 아직도 낮고 한 90%쯤 돼야지 새누리당이나 그런 곳에서 겁을 먹고 좋게하려고 바꿀텐데 나는 투표할 생각 없다고 투표할 시간에 놀러가겠다고.. 그건 미친놈이죠. 자기가 앞으로 살 나라이고 자기가 최소한 몇십년 이상을 살아야 할 나라인데 제일 기본적인 권리를 버리는 거나 다름이 없달까. 6,70대 이상은 이때까지 배워오고 살아온게 그건데 바꾸는게 힘들지만 2,30대가 투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죠. 투표에 참여를 안하는건 말도 안되는 거죠. (연구참여자 04)

인터넷에서는 활발하지만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없는 특성이 있다. 예를 들면, 선거 전 인터넷에서는 모두들 정치에 관심이 많으며 투표하지 않는 사람을 쓰레기라고 우리가 세상을 바꿔야 한다고 떠들어 대지만 실제 투표율을 보면 20대가 가장 낮다. 그들은 말로는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매일 사회를 비판하지만 그들이 비판하려는 사회를 바꾸려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연구참여자 14)

이거는 사실을 말하는 거긴 하지만 ‘세대 대결 뚜렛’ 같은 제목으로 내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분열을 조장하는 것 같아요. 세대를 반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꾸 이런 기사를 냈으로써 젊은 세대는 나이 든 사람들은 왜 저런지, 나이 든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새민련을 찍는다는 생각만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사실을 간략하게 잘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전달은 잘 되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12)

위에 인용한 연구참여자들의 인터뷰 내용은 세대담론이 오히려 갈등을 유발하는 양상을, 그리고 그러한 양상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인식을 드러낸다. 연구참여자 04와 연구참여자 14의 언급은 세대담론으로 인해 오히려 같은 세대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고, 이러한 오해로 인해 동년배에 대한 불만, 편견이나 갈등 요소들이 생길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참여자 12는 세대 간의 차이와 갈등을 강조하는 보도프레임이 오히려 세대 간의 갈등과 분열을 더 부추길 수 있음을 지적한다. 나는 그러한 지적이 상당 부분 설득력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연구참여자 11)

4. 결론을 대신하여

한국사회는 세대담론의 과포화 상태에 있다. 서두에서 언급했듯, 우리는 다양한 사회정책 담론과 과학 분야에서 ‘세대’가 매우 상이한 방식으로 도구화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Parnes, Vedder & Willer, 2008, 전상진, 2013: 303에서 재인용). 나는 이 연구를 세대담론이 세대를 어떻게 형성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했으나, 연구의 끝에서 나는 오히려 세대 문제가 아닌 것을 세대의 틀로 이야기함으로써 생기는 문제 요소들에 대한 성찰을 하게 되었다. 세대에 대한 틀린 전제들과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담론들은 일정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도 아마 세대에 대한 말하기는 계속될 것 같다. 이 상황에서 세대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고, 수행하고 있고, 수행하려고 하는 (예비)연구자로서 내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차원에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들이 공유하고 있는 세대에 대한 전제들을 의심해 보고, 세대내의 차이를 세밀하게 보려고 하고, 어떤 세대 문제가 정말 세대 문제인지 다른 문제는 아닌지 검토해 보는 이러한 성찰성의 발휘가 세대에 대한 혼란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 절실하게 요구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다.

아마도 너무 당연하게 일상적으로 쓰고 있지만, 사실은 아주 모호한 기표인³⁴⁾ ‘청년’이라는 기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찰해 보는 것은 그 시작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34) 간단하게는, 청년이 도대체 몇 살까지 몇 살까지로 한정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길섭 (2010). 386세대의 ‘그날’: 주체형성, 시대정신, 그리고 삶과 정치. <문화/과학>, 통권 62호, 113-133.
- 고덕영 (2013, 10, 11). 주체의 기획이 좌초된 20대 세대론을 다시 읽는다: ‘88만원 세대’의 확산과 그 변형. 미디어스 {On-line}, Available: <http://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532>
- 김사과·정다혜·한윤형·정소영 (2010). 20대 얘기, 들어는 봤어? : 청년세대의 문화와 정치. <창작과비평>, 2010년 봄호(통권 147호), 269-299.
- 김태원 (1999). 문화로 이르는 길 : 게오르그 짐멜의 문화이론. <한국사회학>, 제33집 겨울호, 883~915.
- 노환희·송정민·강원택 (2013). 한국 선거에서의 세대 효과: 1997년부터 2012년까지의 대선을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제12권 제1호, 113-140.
- 민영·노성중 (2013). 가치, 참여, 인터넷 이용 : 386세대와 정보화세대의 비교. <한국언론학보>, 제57권 2호, 5-32.
- 박경숙 외 (2013). <세대 갈등의 소용돌이>. 서울: 다산출판사.
- 박재홍 (2001). 세대연구의 이론적·방법론적 쟁점. <한국인구학>, 제24권 제2호, 47-78.
- 박재홍 (2005). <한국의 세대문제 : 차이와 갈등을 넘어서>. 파주: 나남출판.
- 박재홍 (2009). 세대명칭과 세대갈등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경제와사회>, 통권 제81호, 10-34.
- 박재홍 (2010). 한국사회의 세대갈등 : 권력·이념·문화갈등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제33권 제3호, 75-99.
- 신광영·문수연 (2012). 계급과 스펙경쟁. 2012년 한국사회학회 후기 사회학대회 발표문. 경희대학교.
- 심광현 (2010). 세대의 정치학과 한국현대사의 재해석. <문화/과학>, 통권 62호, 17-71.
- 오찬호 (2010). 88만원세대를 읽어내는 딜레마 : 세대‘내’경쟁에서 패배한 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이유. <문화/과학>, 통권 63호, 107-123.
- 오찬호 (2012). <불안의 시대, 자기계발 하는 20대 대학생들의 생존전략>.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오찬호 (2013).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서울: 개마고원.
- 이남석 (2013). 해제 - 운동론의 관점에서 본 세대론. Mannheim, K. 이남석 (역). <세대 문제>(98-133쪽). 서울: 책세상.
- 이동연 (2004). 세대문화의 구별짓기와 주체형성 - 세대담론에 대한 비판과 재구성. <문화/과학>, 통권 37호, 135-153.
- 이상길 (2000). '신세대', 혹은 1970년대 생. <1970년대생 - '신세대' 가치관의 재조명>. 새천년준비위원회 보고서.
- 전상진 (2004). 세대 개념의 과잉, 세대 연구의 빈곤: 세대 연구 방법에 대한 고찰. <한국사회학>, 제38집 제5호, 31-52.
- 전상진 (2013). 경제민주화와 세대 : '연금을 둘러싼 세대들의 전쟁' 레토릭에서 나타나는 세대의미론과 활용전략의 변화. 한국사회학회 (편). <상생을 위한 경제민주화> (294-324 쪽). 광주: 나남.
- 전상진·정주훈 (2006). 한국 후기 청소년 세대의 발달경로와 성장유형 :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40집 제6호, 261~285.
- 한윤형 (2010). 월드컵 주체와 촛불시위 사이, 불안의 세대를 말한다 : 강제로 규정된 청년세대의 복잡미묘함에 대해. <문화과학>, 통권62호, 72-91.
- Edmunds, J. & Turner, B. S. (2002). *Generations, culture and society*. Open University.
- Jaeger, H. (1985). Generations in History: Reflections on a Controversial Concept. *History and Theory*, 24(3), 273-292.
- Kertzer, D. I. (1983). Generation as a sociological problem. *American Review of Sociology*, 9, 125-149.
- Mannheim, K. (1929). *Das Problem der Generationen*. 이남석 역 (2013). 『세대 문제』. 서울: 책세상.
- North, M. S., & Fiske, S. T. (2012). An inconvenienced youth? Ageism and its potential intergenerational roots. *Psychological bulletin*, 138(5), 982-997.
- Parnes, O., Vedder, U., & Willer, S. (eds.) (2008). *Das Konzept der Generation, Eine Wissenschafts-und Kulturgeschichte*. Frankfurt a. M.: Shurkamp.

White, J. (2013). Thinking generations.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64(2), 216–247.

<부록1> 청년(들)의 이야기

<부록1>을 통해 심층인터뷰에 응한 13명의 청년들의 개인적인 정치 사회화의 과정들을 그들의 생애사 인터뷰 자료를 바탕으로 간단한 자서전의 형식으로 재구성해 수록하였다. 세대 이론의 관점에서 현재의 청년층이 어떠한 세대의식(혹은 정치의식) 형성 과정을 겪는지, 즉 오늘날의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만들어진, 어떤 존재인지를 고민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명심해야 할 것은, 부록을 통해 수록된 청년 한 명 한 명의 삶이 어떤 식으로든 일반화될 수 있다는 선부른 예측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어떤 연구참여자들의 성장 과정이나 세대의식은 기존의 청년세대담론에서 말해온 것과 유사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연구자로서 나는, 여기에 수록된 청년 13명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이 ‘요즘 청년들은 이런 존재구나’를 생각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청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같은 20대라고 해서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세계는 나와 다른 수많은 타자들의 합이라는 것을 더 생각하게 되기를 바란다.

- 연구참여자 01의 이야기

저는 26살, 인문계 석사과정 대학원생인 연구참여자 01입니다. 제가 몸담으려는, 공부하려는 분야가 정체되어 있거나 쇠락하는 중인 것 같아서, 망해가는 걸 보면서 내가 그걸 공부하려 한다는 느낌이 드는 게 제 삶에서 이따금씩 힘든 지점입니다.

대전에서 태어나, 아버지 일 때문에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이라는 섬에서 5년 동안 살다가 다시 대전으로 이사를 와 학창시절을 보냈어요. 저의 세계관은 많은 부분 스무 살 이전에 학교에서 겪은 일들을 통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중학교는 대전에서 소위 ‘꼴통, 깡패학교’로 알려진 학교에 다녔고, 고등학교는 ‘사립명문학교’에 다녔거든요. 반 애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너 집 어디 살아’, ‘동네가 어디야’를 물어보는 일이 잦았고, 마치 서울에서 강남에 비해 강북이 무시를 당하듯 서구나 유성구 애들에 비해서 제가 사는 동구 애들은 무시를 당했어요. 그때 어느 동네에서 사는가가 이 나라에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됐고,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너희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서 복수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또 저는 기독교인인데 그래서 그런지 무슨 일이 있거나, 불행,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여기에 담긴 신의 뜻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돼요. 또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약자에 대한 사랑’이 매우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힘든 사람들에 대해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대학에 오고 나서는 노르웨이로 교환학생을 갔던 일이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전까지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학교 애들 아니면 동아리 사람들, 그러니까 다들 대충 4년제 대학에 다니는 사람들로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외국, 완전히 다른 세계로 가면서 경험이 많은, 또 서로 다른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알게 되니 내 생각의 한계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삶에 대해 생각하는 폭도 좀 넓어진 것 같고요. 대학은 무조건 가야하고, 기업에 취직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고시를 보거나 이 정도밖에 선택지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세계 각국의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살기도 하는구나 저렇게 살기도 하는 구나를 직접 보면서 많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문화권에 따라 삶의 양상이 많이 변한다는 것도 생각하게 됐고요. 제가 노르웨이에 있을 때, 브레이비크의 테러 사건이 터졌었는데, 그때 노르웨이 국민들이 테러범을 죽이자는 여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정치에 열심히 참여하고 사회 문제를 없애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런 사태가 터진 것이라고 자기비판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북유럽식의 사회민주주의적인 이상을 어느 정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저 자신을 완전히 ‘진보’라고 부르기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한국의 진보-보수 개념이 워낙 모호한 탓도 있겠지만, 주변에 ‘골수 좌파’로 불리는 애들에 비해서 제 생각은 확실히 보수적인 것 같은데, 또 자기는 ‘중도적’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니시는 교수님들에 비하면 좌쪽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중간보다는 약간 왼쪽에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역사 공부를 좋아하다 보니 근현대사를 비롯한 역사 공부를 하면서 ‘내가 완전히 오른쪽에 설 수는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청년들은 불안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청년들과 과거의 청년들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옛 청년들은 오늘날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수성가 가능성이 큰 사회, 그러니까 내가 아무 것도 없이 시작해도, 내가 무언가를 개척하는 식으

로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사회에서 살았죠. 그런 가능성이 차단된 사회에서 청년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은 뭘 하더라도 자기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가 쉽지 않고, 부모님의 집, 직업, 경제적 능력이 청년들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가 쉬운 사회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삼포세대라는 말을 들을 때 나는 그러지 않아야 겠다는 생각을 했던 편인데, 요새는 결혼이나 출산은 포기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친척 형이 일곱 살짜리 애 교육비로 한 달에 3,400만원씩을 쓰는 것을 보면서 그렇고, 결혼할 때 남자는 뭘 준비해야 하고, 여자는 뭘 준비해야 한다는 식의 사회적인 합의가 깨지지 않는 모습을 볼 때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요. 그런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요?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청년들도 정치에 참여해서, 사회의 불편이나 부조리한 모순들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소극적으로는, 야망을 없애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겁니다.

- 연구참여자 02의 이야기

저는 30살, 인문계 박사과정 대학원생인 연구참여자 02입니다. 현재 박사를 수료한 상태이고 취업준비를 한창 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생들이 '고상한 척'하면서 공부하기는 하지만 결국에 돈을 벌어야 하는데, 인문계 대학원생들의 공급은 많은데 수요는 적어지니까 그게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게다가 '순수 학문'이 아니라 돈이나 명예, 권력 같은 것을 아주 조금이라도 추구한다는 티를 내면 '속물'로 보는 주변 시선도 힘듭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엄마하고만 쪽 살아오고 있습니다. 태어난 곳은 서울이지만, 어렸을 때 일찍 충북 청주로 가서 초등학교 때까지 살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이모가 임신을 하셔서 이모가 운영하던 가게를 봐 줄 사람이 필요해져서 초등학교 6학년 중반에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시골에서 온 애이기 때문에 무시당하는 것도 좀 있었고 성격이 위축이 됐었는데, 중학교 이후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하면서 서울에 적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재수를 거쳐 대학에 입학했어요. 대학 3학년 때 유럽여행을 다녀왔는데, 한국에 돌아오니까 집에 빨간 딱지가 붙고 집안이 어려워져 있었어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학업과 노동을 병행

하는 식의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엔 정치적 성향이나 정치의식이 꽤 늦게 형성된 편입니다. 청주나 강남과 같이 보수적인 경향이 강한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게 맞겠거니 했겠고, 청소년기에는 시사에 관심을 갖더라도 순전히 입시를 위해 <조선일보>를 읽는 수준이었습니다. 집안에 큰아버지가 정치를 했는데, 그래서 ‘정치는 되게 나쁜 거야’ 하는 일종의 혐오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학부 때 여성학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기존에 생각했던 모든 게 다 진짜는 아닐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대학원에 오면서 여러 사람들, 교수님들의 말을 들으면서 정치의식이 어느 정도 자리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재수학원을 다닐 때부터 이후로 강남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온 친구들과 만나기 시작하면서, 경제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정치관, 가치관, 생각하는 방식 자체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에게 아이스크림을 먹자고 하면 저는 배스킨라빈스나 그런 걸 말하는 건데, 제 친구들은 그냥 슈퍼에서 파는 아이스크림으로 알아 들었고, 이런 차이 때문에 ‘개념 없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이명박 대통령의 실정도 제가 상대적으로 스스로를 ‘진보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시장 시절에는, 행정을 잘한다는 생각에 이명박 대통령을 좋아했었는데, 언론이 통제되고, 연예인이 방송에서 잘려나가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민주주의 사회인지에 대해 회의하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날의 청년들이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는, 꿈이 없는 상태인 것이 안타깝습니다. 잘 하는 게 뭔지도 잘 모르고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면이 많고, 연애할 때도 계산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저도 청년들의 특성에 대해 조금 부정적으로 말하기는 하지만, 언론에서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너무 청년을 매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꼭 저렇지 않은 양을 텐데 하는 생각들이 드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청년세대가 정치적으로 무관심하다고들 하는데, 저는 누구나 다 입장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갖기 싫어도 더 마음이 가는 쪽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무관심하게 보이는 이유는, 공무원이 되려고 한다면 그런 정치적인 활동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엇을 한다는 것이 내 미래를 저당 잡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현실적 위협 때문에,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인 면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 연구참여자 03의 이야기

저는 28살, 정신과 레지던트 3년차 의사인 연구참여자 03입니다. 서울에서 태어나서 경북 봉화에 10년 정도 살았고, 지금은 동생과 함께 월세 방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수련 과정이 끝나면 전문의가 되는데, 정신과 전문의가 아주 흔한 직업이 아닌데도 여기에도 새로 진입하는 의사들을 위한 빈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의사 한 명이 일을 많이 하는 구조인데다가, 은퇴도 잘 안 하니까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 걱정을 가지고 있고, 또 수련의 기간에는 급여가 많지 않아서 미래 소득을 가늠하는 식으로 생활을 꾸리고 있는데 이것도 항상 고민하는 지점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쯤 아버지가 다니고 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봉화군에 내려가게 돼 거기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회사에 연대보증을 섰던 것 때문에 집에는 계속 빚 독촉전화가 왔고, 각자 방문도 항상 잠그고 살았습니다. 공부를 곧잘 하는 편이었는데, 그러다보니 고등학교는 지역에 있는 외고를 가게 되었고 대학도 의대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희 집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해서 전공으로 의학을 골랐었습니다. 대학을 장학금을 받으며 다녔고, 생활비는 과외 아르바이트를 통해 벌 수 있었고 그래서 대학에 온 이후로는 부모님과 경제적으로 독립했습니다.

저는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진보연대라는 시민단체에 정회원으로 있기도 하고, 진보신당에 가입한 적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민주주의 정도의 사회상을 지지합니다. 이러한 정치적 성향은 어렸을 때부터 경험을 통해 형성되어 온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 어려울 때 국가에서 얻어내야 하는 부분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어머니가 빵 공장에서 일하실 때 월급을 못 받아서 노동부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걸 보고 자라기도 했고요. 어렸을 때 정치에 관심이 많았다고는 못하겠지만, 선거 방송 보는 건 좋아했는데 그때도 웬지 한나라당보다는 민주당이 이기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한나라당은 제 입장에서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편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성향을 의식적으로 자리 잡힌 것은 대학에 들어온 후였습니다. 사실 제가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를 한 타입이기 때문에, 학창시절에는 집안이 안

좋아서 공부를 못 한다 이런 건 다 핑계고 그건 네가 공부를 안 해서, 못 해서 그런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어요. 어렸을 때도 인권 같은 것에 감수성은 상대적으로 풍부했던 걸로 기억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할 예정인 학생이었죠. 그런데 대학에 와서 사회과학 동아리를 하면서 세미나도 하고 건강행정활동이라고 해서 해고자들이 싸우고 있는 곳이나 서울대병원 노조 같은 곳에 가서 많은 사람들 얘기를 듣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조금 더 체정치성향이 지금의 방향으로 굳어졌습니다.

오늘날 청년들은 스펙을 따지는 게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디 취직했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옷이나 차, 집안이나 출신, 대학, 이런 것들을 다 서열화 시키고 자신이 낮은 스펙을 계속 높게 올리려고 하면서 힘들어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또 기성세대에 비해서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려 있는 것 같고요. 해외로 여행을 간다거나, 문화적인 경험의 폭이 넓다던지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실제로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고 있느냐는 다른 문제 같아요. 시간적 여유나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나 그 가능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문제니까요.

외고 출신이고, 대학에 입학한 이후에도 주로 의대생이나 의사들과 교류해 왔기 때문에 제가 '일반적인 청년세대'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를 보면 저는 청년에 속하지만, 신문에 나오는 청년 이야기들과 저는 안 맞을 때가 많거든요. 저는 대학 다닐 때 과외를 1주일에 8시간만 하면 한 달 100만원을 벌 수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88만원세대라는 말은 저한테 해당하는 말은 아니겠죠. 조건을 따져서, 돈을 많이 주는 곳으로 갈 것인지, 삶에 여유가 있는 곳으로 갈 것인지 이런 것을 고민을 하긴 하지만, 전문의로서의 제 미래 자체가 불투명하고 불안정한 건 아니니까요.

당장 같이 사는 제 동생하고만 비교해도 우리가 같은 연령대인 건 분명하지만, 같은 운명을 공유하는 세대인지는 불분명한 것 같아요. 사법고시를 준비하다가 포기한 제 스물일곱살 동생은 학점도 좋지 않고, 부대경험 쌓은 것도 별로 없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황이거든요. 동생이 언젠가 연애는 모르겠고, 결혼은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출구를 찾기가 어려운 사회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거죠.

- 연구참여자 04의 이야기

저는 19살, 부산에서 태어나서 현재 신촌에 거주 중인 연구참여자 04라고 합니다. 대안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밴드를 하고 기타를 연주하기 위해 서울에 왔습니다. 고3 때부터 음악을 하기 위해 실용음악과를 준비했었는데, 한국의 대학 시스템이나 등록금 같은 걸 봤을 때 뭔가 돈 낭비, 시간 낭비 같다는 생각이 들어 대학에 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모님이 대학 보내는 셈치고 제가 서울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음악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유명해져서 사회적 기부활동과 자선활동, 정치적 활동을 하는 그런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88만원세대입니다. 만약 부모님의 지원이 없다면 당장이라도 월세도 구해야 하고 밥 먹을 돈도 구해야 하겠죠. 부모님의 지원이 끊기면 거지가 될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왕따를 당했는데 이게 제 인생을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친구도 거의 없었고, 말도 아예 안 했고,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모든 계획이 나 있는 상태였어요. 아토피 피부병까지 앓아서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이 대안학교를 권유하셨고 제가 동의를 해서 중학교에서부터는 대안학교를 다녔습니다. 대안학교는 기숙사 생활을 하고 일반 학교랑 수업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토론 수업도 따로 있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기숙사의 일상에서도 토론을 많이 하고요. 중학교 때는 강화도에서 학교를 다녔었는데, 그때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촛불집회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치의식이 형성됐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부산에서 활동을 하고 시위를 했었던 분들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치나 사회적인 시스템에 대해 알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된 면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청년이 진보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촛불세대'와 같은 이야기에 저는 그다지 공감은 되지 않습니다. 제대로 투표를 하는 사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20대 투표율을 보면 화가 나요. 한 90% 쯤은 투표율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20대, 30대는 자기가 앞으로 살 공간인데 자기가 살 나라인데 투표를 하지 않아요. 제가 아는 형 중에 전주에 사는 형이 있었는데 다음날이 선거일인데 서울에 놀러왔어요. 너무 당당하게 전주에 갈 수 없어서 투표를 안 한다고 해서 너무 황당했어요.

대부분이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일텐데 청년들이 등록금이나 학비나 생활

비, 그것 때문에 휘둘리고, 수업이 끝나면 바로 알바를 하고, 그러면서 여유를 잃고 웃음을 잃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학자금 대출이라도 받은 사람은 졸업하는 순간 자유가 아닌 빚쟁이가 되고, 빚 갚고 군대 갔다 오고 대학 졸업하고 나면 회사에 가고, 회사가 행복한 것도 아니고, 일에 치이고 술 마시고 간암 걸려서 죽고 얼마나 암울한 일인가요. 게다가 학교에 ‘당신이 쉬는 동안 적의 책이 넘어가고 있다’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는 나라, 친구를 친구가 아닌 적으로 보는 식으로 경쟁하는 사회에서 인간성이 파괴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 연구참여자 05의 이야기

저는 25살, 12월에 간호사로 병원에 입사할 예정인 연구참여자 05입니다. 요즘은 입사 전 시간이 남아서 단기 아르바이트 같은 것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났고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셔서 어렸을 때는 할머니 손에서 컸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좀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소극적인 성격에 공부도 잘 하지 못했었는데, 엄마가 초등학교 졸업고사 결과를 보고 울면서 저를 붙잡고 너 미술을 할래 음악을 할래 하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그때를 계기로 공부를 그나마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고3이 끝나고 대학에 입학하게 됐는데, 처음 들어갔던 대학 오리엔테이션에서 너무 많이 실망을 해서 바로 재수를 하게 됐습니다. 1,2학년 때는 방황도 많이 하고 술도 자주 마시고 그런 식으로 지내다가 3학년 때부터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토익 점수를 만들고, 봉사활동을 준비하고,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준비하고요.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열심히 산 것 같은데 그렇지 만도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인터넷에 공고를 올려서 사람을 모아 스터디도 했습니다.

굳이 저의 정치적 성향을 진보와 보수 중에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보수적인 쪽입니다. 정치를 떠나 가치관 면에서도 좀 그런데, 저는 이성친구와 결혼 전에 여행을 가는 걸 이해하지 못하기도 하고요. 제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게 된 것은, 새누리당 지지자인 부모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약을 보고 생각할 때도 민주당보다는 새누리당을 지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새누리당을

지지한다고 하면 주변의 많은 사람들한테 한 소리를 듣곤 합니다. 사촌오빠가 민주당을 지지해야 하는데 ‘넌 이래서 안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해서 화가 많이 났던 적도 있어요. 사촌오빠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으로 바뀌야 한다고 말하고 새누리당은 지지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 새누리당이든 민주당이든 공약은 다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실천 불가능한 걸 내뱉는 것 같은 느낌도 크고요. 하지만 선거에서는 민주당을 찍은 적도 있습니다.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선택했어요. 그때 사귀었던 남자친구 영향도 있었고,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정말 깨끗하다고 생각했어요.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지 민주당을 지지한 건 아니었고, 문재인 의원은 지금도 제가 좋아하는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보통 말하는 정치나 시사와는 거리가 먼 편입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워낙 스마트폰만 열면 SNS를 통해서 뉴스 소식들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남들이 아는 만큼은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에 관심이 많지는 않지만 투표는 꼬박꼬박 하는 편입니다. 투표는 국민의 권리가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버지가 선거날 새벽에 가족들을 다 데리고 투표를 하러 가지거든요. 하지만 투표하는 것 이상의 정치적인 참여나 행동을 하는 것은 꺼립니다. 저는 4년제 간호학과를 나왔는데, 3년제 간호대학을 4년제로 인가를 받는 정책이 나오면서 학과에서 교수님이나 학생회가 정책 반대 서명을 하라고 수업시간에 서명지를 돌리셨는데 그 때도 반대 의견은 있었지만 서명은 안 했습니다. 제가 입사할 병원에도 노조가 있는데 왠지 노조에는 거리감이나 거부감이 느껴지고 좀 무섭기도 합니다. 서명을 하거나 노조에 참여하면 뭔가 불이익이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그런 정치적 행동은 꺼려집니다. 촛불집회에도 가 본 적이 없어요. 20대가 진보적이라거나, 촛불을 통해 행동하는 세대라거나 하는 말들에는 솔직히 동의가 잘 안 됩니다. 제 주변이 저랑 비슷한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사람들이 딱히 진보적이라거나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어요.

- 연구참여자 06의 이야기

저는 27살이고 사회적 기업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연구참여자 06입니다. 경영학과 미디어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스무살 때 완전히 독립을 해서 이후로는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사회에 진출해야 할 시기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용돈을 조금씩 받기 시작했어요. 그걸로 인해서 죄책감도 있고, 조금만 여유가 있다면 내가 좀 더 많은 걸 할 수 있을텐데 하는 생각들,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IMF 전후로 생활이 어려워져서 부모님이 두 분다 일을 하셨습니다. 어릴 때 여러 악기를 배웠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 둘씩 그만두어야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하는 것도 싫어하고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노는 게 너무 좋아서 친구들과 계속 어울리면서 지냈어요. 부모님이 굉장히 저를 자유분방하게 키우셨어요. 절대로 '뭐 하지 말고 공부해라'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없었고, 친구들이 가출을 하면 다 저희 집에서 잠을 잘 정도로 개방적인 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무 살 때는 대학을 가지 않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20대를 시작했는데 대학도 안 나왔다고 무시하는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런 일을 계기로 공부를 시작하게 됐고 강원도에서 대학을 다녔어요. 3학년을 다니다가 휴학을 했는데 봉사활동을 하면서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친구들을 만났고 그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 내가 너무 우물 안 개구리 같이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억울했어요. 그런 계기로 편입 공부를 시작해서, 편입 재수 끝에 지금 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대학생활이 길었죠.

사실 중학교 때 만난 친구들이 그렇게 바른 생활을 하는 친구들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친구들을 그냥 나쁘다고 생각했으면 어울리지 않았겠지만, 저는 그 친구들에게서 다른 인간미를 발견했고, 저와 굉장히 다른 가정환경의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편부모 가정에 살고 있거나,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거나, 아버지가 교도소를 가셨다거나 하는 그런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때 늘 많이 혼났고, 나쁜 짓을 하다가 경찰서를 가본 적도 있습니다. 그때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반항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 그런 친구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던 경험이 또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어져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같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가치관도 갖게 됐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지금 제 정치관을 만드는 데도 영향을 줬어요.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직접 경험하면서,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고 너무 많다는 걸 보았고, 가진 자만이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도 받았고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기 보다는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갖게 됐

고, 그런 정치인들을 지지합니다. 청년들의 삶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루하루 힘겹게 자기 삶을 살기도 바쁜 친구들이 너무 많고 행복을 찾아보기도 힘들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언가를 포기하거나 놓아버리거나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삼포세대는 돈이 없어서 생겨난 말이지만 사실 남자들이 무조건 집을 사야한다는 강박관념 같은 것들을 버리면 결혼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제 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떻게 지금 연애를 하냐고 얘기하던데, 돈이 없어도 자존감만 있으면 연애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 연구참여자 07의 이야기

저는 30살 프리랜서인 연구참여자 07입니다. 대전에서 적성에 맞지 않는 전문대를 다녔었는데, 군대에 갔다 와서 학교는 그만 다니고 무작정 서울에 올라와서 7년째가 되었습니다. 말이 프리랜서이지 사실상 장기적 취업준비생인데 일이 잘 안 풀리고 있고, 이것저것 하긴 하는데 하는 것마다 실패를 해서 쉽게 말하면 프리터족이나 동네 백수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세 이후는 인생 자체가 거의 악몽입니다. 대출을 받아서 빚 갚느라 허덕인 적도 있고요. 죽지 않으려면 돈이 있어야 하니까 알바를 하는, 반 백수의 삶을 살고 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폭력에 많이 시달려 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됐고,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좀 자식 훈육을 위한 폭력을 행사하시는 편이었어요. 그러다보니 그때 지금의 정치적 성향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 같고, 이런 현실을 뜯어 고치려면 어떤 것을 해야 할까 생각하던 중에 친구 추천으로 민주노동당에서 했던 청소년 정책 캠프에 가게 된 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그때가 2003년이었는데, 캠프에서 토론하면서 너무 신선함을 느꼈습니다. 청소년을 당원으로 받아주는 당이 없는데, 그걸 민주노동당에서는 했으니깐요. 이후에는 계속해서 진보정당에서 당원 활동을 해 왔습니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그리고 녹색당으로 이어졌네요.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들이 말하는 청년세대가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나 대학생 위주인 것만 같아서 불만이 많습니다. 정책들도 대학생 위주고요. 저는 그들이 말하는 '청년세대'에 소속되지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박원순 시장의 청년정책도 별

로 신뢰하지를 못하겠습니다. 그 정책들이 주로 ‘부르주아 청년들’을 위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양심적 부르주아 청년들을 양성하는 정책. 청년일자리허브에서 하는 사업들도 아는 사람들만 팀을 만들어서 지원을 받고, 청년 전체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보여주기 식, 실적 쌓는 식으로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88만원세대론에서부터 이어지는 20대의 정치 주체화 담론들에도 불만입니다. 청년들한테 중요한 건 우리 밥 굶지 않는 건데, 사실 박근혜 같은 사장이 월급을 주는 것이나 좀 더 나은 사장이 월급을 주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88만원세대론 같은 것들은 386세대의 자기면피용 담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못된 자기들이 해 놓고, 10년 동안 바꾼 것이 하나도 없으면서, 대학생들, 젊은이들을 운동 현장으로 차출하고자 하는 이상한 강요라는 생각이 듭니다.

- 연구참여자 08의 이야기

저는 31살, 결혼을 해서 남편과 둘이 살고 있는 연구참여자 08입니다. 시골에서 태어나서 20년 동안 살다가, 대학교 때 서울에 왔어요. 임신을 해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두었는데 유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직장을 알아보고 있는데, 결혼 전만큼 일할 수 있는 곳이 쉽게 구해지지는 않네요.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자라는 과정에서 기억에 크게 남는 일도 없고, 집안도 그냥 보통 집안이었어요. 원하는 걸 다 얻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치스러운 게 탐나지만 할 수 없었던 것만 빼면 만족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광고 쪽 일을 해 보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끈기가 없다 보니 끝까지 열심히 안 해서 성적이 생각보다 잘 안 나왔어요. 그때 제가 원하는 걸 밀어 붙이지 못하고, 성적에 맞춰 대학을 틀어 버리면서 뭘 하고 싶은지가 많이 없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점수 맞춰서 대학을 가라고 하셨던 선생님이 좀 원망스럽기도 하고, 자신이 좀 후회스럽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게 된 대학에서는 공부를 아예 안 했어요. 취업에 대한 생각도 많이 안 하다가, 적당히 은행에 취업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회사에 1~2년 다니다가 그만두고 여행을 다니다가 다시 직장을 구하는 그런 생활의 연속입니다. 제가 끈기가 없고 금방 싫증이 나고 여행을 좋아하고 그래서 눈을 좀 낮춰 정규직보다는 계약직 위주로 회사를 다녔어요. 그런 와중에

신랑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요.

저는 정치나 시사에 관심이 거의 없었고 지금도 많지는 않아요. 대학 때 문선(문화선동) 동아리를 했는데도 별로 관심이 생기지 않았어요. 운동에 관심이 있어서 문선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율동 동작을 하는 게 재밌어서 문선을 했습니다. 여성 운동 행사 같은 진지한 자리에서도 그냥 그 자리의 의미를 생각하기 보다는 동작 하는 것 자체가 즐거웠던 것 같아요. 선배들 몇 명은 너희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문선하면 안 된다고 혼냈었는데, 그래도 선배들 말에 휩쓸리지는 않았어요. 운동에 거부감은 없고 운동하는 사람들을 응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참여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비겁하죠. 시민단체나 청년단체도 뉴스나 페이스북에 하도 많이 나오니까 응원은 하고 있는데, 직접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마음속으로 응원하는 것도 관심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투표도 지금까지 딱 두 번밖에 안 해 봤어요. 귀찮고, 별로 관심이 없고, 제가 투표를 해도 바뀌는 걸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귀찮은 게 가장 컸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래도 조금씩 바뀌겠지 하는 생각이 조금 커졌어요. 그래서 변하지도 않는데 투표 안 해야지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총선 때 투표한 후에 내가 잘 한 일이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지 않기는 했지만요. 아무래도 결혼한 후에 남편 영향이 큰 것 같아요. 남편이 특별한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자기 권리는 행사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 연구참여자 09의 이야기

저는 21살,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연구참여자 09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누나가 있는 4인 가족에서 자랐고, 부모님이 젊은 시절 적극적으로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분들이셔서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셨고, 자주 다투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머니는 집을 나가셔서 다른 데 사셨고, 아버지는 항상 11~12시에 집에 오셨고, 누나는 예중 진학을 준비하느라 아버지랑 같이 집에 왔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그런 과정에서 학교도 안 나가게 되고 도둑질도 하고 일탈을 심하게 했습니다. 그때의 외로움 때문에 만성적인 강박과 불안이 생겼어

요. 어렸을 때부터 상담치료를 받았고 지금도 공황장애가 있어서 꾸준히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는 왕따를 당한 적도 있고 해서 학교에 별로 적응을 많이 못했었는데 자라면서 사회성도 생기고,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만난 친구 들은 제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했고요. 한 명은 꿈도 확실하고 열심히 사는 친구여서 난 왜 저렇게 못하지 하면서 그 친구의 모든 걸 따라했어요. 학생회도 들어가고, 야자실에서 공부하고요. 나머지 한 명은 마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엄석대 같은 친구였는데, 선생님이 있을 땐 친구를 위하는 척하면서 선생님이 없으면 친구를 괴롭히고 때리는 반장이었어요. '왜 선생님들은 저런 애를 칭찬하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머리가 크고 처음으로 사회정의에 대해 생각해 본 것 같아요.

저는 진보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잘 되지 않는 것들에 분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진보나 보수를 넘어서는 '정의'를 신뢰해요. 아무래도 부모님이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들이다 보니 영향을 받은 게 커요. 부모님은 민주화 운동 했던 이야기를 하는 걸 싫어하세요. 하지만 직접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로 간접적으로 알게 모르게 부모님의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산소고기 수입과 관련한 촛불시위도 중학교 3학년 때 누나랑 같이 나갔었던 적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대학에 와서 대학의 문화, 주변 대학생 친구들의 몰감수성에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대학 1학년 때 제가 느낀 대학 사람들은 너무 마초적이고 말도 막 하고 장난을 기분 나쁘게 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한 사람을 희화화 하면서 자기들끼리 즐거워하는 모습이 싫었어요. 여성주의 같은 것을 희화화하거나, 장난이지만 저를 소개하면서 "애 빨갱이니까 조심해야 해" 하는 식의 말도 하고요. 제 주변 대학생들을 비롯해서 요즘 청년들은 왠지 개인주의화, 탈정치화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맹목적으로 정치적이지 않기를 원하고, 멍치려고 하지 않고, 그 이유는 뭔가 공유하는 가치관이나 목표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날의 20대, 청년들은 사회변혁의 주체가 아니라 그냥 불안정한 세대로 느껴져요.

처음에는 이런 대학에 실망해서 과 활동도 하지 않았는데, 2학년이 되면서 과 활동을 다시 시작했어요. 내가 겪은 일을 후배들은 겪지 않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애네 대학생활 적응하게 돕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학과 술 문화도 바꾸려고 하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어찌다보니 학과 친구들의 신뢰를 얻어서 과 학생회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의 연장선상에서 내년 단과대학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연구참여자 10의 이야기

저는 27살, 지금은 졸업해서 백수 상태로 소소한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 연구참여자 10입니다. 소소한 일들이라는 건 보통의 취업준비생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인턴도 잠깐 했었고, 친구들이랑 커뮤니티 활동도 하고, 아는 언니 통해서 기사 분석하거나 자료 조사하는 아르바이트도 좀 했어요.

굉장히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아니 굴곡도 없고, 사춘기도 없고, 반항하고 이런 것도 없으니 오히려 평범하지 않았다고 해야 될까요? 다른 데 재능이 딱히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공부를 했고 특목고를 갔고, 공부만 열심히 했었습니다. 대학 들어오기 전까지 슬럼프도, 사춘기도 없이 무난하게 지냈어요. 공부를 하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니까 흥미를 잃지 않고 즐길 수 있었습니다. 대학에 온 이후에 인생이 좀 스펙타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처럼 그냥 공부하면,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결과가 나오는 줄 알았는데 4학년 졸업반이 돼서야 진로 고민을 시작한 거예요. 그때 휴학을 하고 고시 공부를 시작해서 1년씩 두 번 고시 준비를 했는데 두 번 다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탈락 소식을 듣고 겨울 내내 집에 있으면서 살도 엄청 찌고 어떻게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때가 정말 개인적인 슬럼프고 실패의 경험이었습니다. 좀 낙천적인 성격 덕에 나름 빨리 극복하긴 했지만, 대학을 졸업하면 어딘가에서 일을 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백수가 되었습니다. 저도 제가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인턴을 하다가도 도저히 못 하겠어서 퇴사하고 여전히 백수이자 취업준비생인 상태입니다.

오히려 몰랐으면 좋겠다 싶은 정도로 대학생이 되고 나서 알게 된 사회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면접에서 두 번 떨어진 고시, 저랑 같이 일할 사람들도 아닌 이 세 사람이 나의 30년을 결정하는 게 맞느냐는 의문이 들었어요. 받아들여야 하는 게 맞겠지만요. 고시 이후에 사기업을 준비할 때는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더 많았어요. 본적과 아버지, 어머니, 오빠가 뭐하는지 같이

사는지 몇 살인지를 왜 자기소개서에 적어야 하는지, 사진을 왜 붙여야 하는지, 내 소중한 대학시절의 추억들이 그저 자기소개서의 소재로 전락하는 게 슬프기도 했어요. 그래서 더 무슨 객기인지는 모를 객기를 부리고, 미래가 정해지지 않아서 불안하면서도 취업준비생으로만 남아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안한 미래나 상황이 저를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정치를 잘 이해하려면 사회, 문화, 역사 모든 걸 통틀어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러기에는 지식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정치에 대해서도 옳다 그르다를 넘어선 호불호를 갖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정치가 좋고 싫고의 문제가 되어 버리면 더 이상 토론할 때 이유도 필요 없고 판단 근거 자체가 사라지는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 그게 오늘날 사람들이 정치를 무시하거나 혹은 싫어하게 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치적인 성향보다는 '저로 인해 제 주변만이라도 많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좋았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제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대변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 연구참여자 11의 이야기

저는 24살, 시각디자인학과를 나와서 지금은 전공을 살려 사회적 기업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연구참여자 11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운이 좋게도, 뭘 좋아하는지를 일찍 알았고 부모님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 지원을 해 주셔서 진로를 빨리 정한 편입니다. 아버지가 경제적 이유로 예고 준비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포기하면서 부모님 마음을 생각해 본 적도 있긴 하지만요.

지방에 있는 학교에 다니다 보니까 진로나 비전에 있어서 침체를 많이 겪었습니다. 3학년 때쯤 내가 정말 무엇을 좋아하는지 찾아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휴학을 했는데, 그때 스펙업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서 정보를 많이 찾아봤어요. 신문사에서 사진기자도 해 보고, NGO단체에서 디자인 일도 하고, 공모전도 해 보고요.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그때 알게 된 언니랑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게 됐습니다. 한 회사를 다녔던 경험 때문에 취직보다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했습니다. 한 달 정도 광고회사에서 인턴을 했었는데, 불

합리한 점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야근이 너무 많은 게 대표적이었는데, 직원 분들이 야근 수당 때문에 낮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일부러 밤까지 끄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상사가 집에 안 가니까 저 같은 인턴은 퇴근을 할 수가 없는데, 인턴은 야근 수당도 없었습니다. 금전적으로는 당연히 취직한 것보다 적은 돈을 받고 있지만, 제가 재밌으니까 창업에 도전한 지금이 즐겁습니다.

굳이 제 정치 성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저는 중간보다는 조금 오른 쪽입니다. 정치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왠지 사회에 대한 혁신을 이야기하고, 캠페인을 하고 슬로건을 내놓는 게 그냥 좀 불편했습니다. 진보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면 실제 사람도 좀 깨끗해야 할 것 같은데, 대선 때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자신은 진보라고 주장하면서 공격적으로 서로 다투기만 하는 모습이 저는 보기가 좋지 않았습니니다. 그렇다고 박근혜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을 그렇게 좋아하거나 지지하는 것도 아니긴 합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을 뽑았었지만 막상 공약을 냈던 것과 실제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게 뭔가 좀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이 좀 바뀌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더 거부감이 있는 쪽은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다른 사람이 됐으면 얼마나 달랐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세대담론들을 잘 알았던 것은 아닌데 들어보니 당황스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실용적(Pragmatic), 유쾌한(Pleasant), 개성이 강함(Personality), 개척자적(Pioneer)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P세대라는 말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이상적인 것처럼 권장을 하지만, 막상 청년들이 진짜 그렇게 하면 되레 욕을 먹지 않나요? 면접도 그렇고 오히려 자기 개성이 드러나면 감점 요소가 되잖아요. 단적으로 머리 색깔부터, 어른들, 사회가 좋아하는 암전한 색깔이 있잖아요. 그런 점들을 제 주변 친구들은 너무 잘 알아서 개성적이고 싶거나 개척자적이고 싶은 욕구도 꺾꺾 눌러 담고 있어요.

- 연구참여자 12의 이야기

저는 화학을 전공하고 있는 박사과정 대학원생, 25살 연구참여자 12입니다. 경북 구미의 시골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농협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양계를 하셨어요. IMF 즈음에 아버지가 농협에 안 나가기 시작하셨는데, 대신 양

계를 더 크게 시작해서 집안이 크게 어려워지거나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곧잘 하고, 운동도 잘 하는 편이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평탄하고 순조로운 학교생활을 했습니다. 부모님이나 주변에게서 칭찬을 받는 게 좋아서 열심히 했고, 별 탈 없이 학창시절을 보냈죠. 대학에 오기 전까지 고민은 대부분 입시에 관련된 고민이었고요. 인생은 행복해지려고 사는 것 같은데, 미래에 행복해지려고 이렇게까지 경쟁을 하고 불행하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얘기를 친구들이랑 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어쨌든 나도 그 사회 시스템의 일원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나오되지 않아서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아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과학고를 조기졸업한 후 대학에 들어왔고, 대학에서도 공부가 재밌어서 공부를 업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계속 한다는 게 아무래도 안정이 되려면 시간이 걸리는 길이니까 계속 진로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박사과정 졸업을 하기까지 2년이 남았는데 졸업한다고 해도 저는 바로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외에 박사후 과정도 다녀와야 할 거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서른 살인데 여자친구는 결혼할 시기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여자친구에게는 미안하지만, 지금 여자친구랑은 결혼을 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박사후 과정을 하며 계속 공부를 하는데 여자친구를 행복하게 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저는 제 스스로가 즐거운 그런 삶을 살겠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즐거움이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남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면서 느끼는 즐거움에 가깝습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애들 기타 가르쳐주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요즘 사교육 같은 게 워낙 심하잖아요. 돈 걱정 않고 아이들이 공부하고 자기가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정치관으로 따지자면 저는 약간 보수적인 편입니다. 새누리당의 보수라기보다는 별로 변화를 바라지 않는 그런 입장의 보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장에 나와서 집단으로 촛불 들고 앉아서 시위하거나 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대학교 1학년 때 미국산소고기 관련한 촛불집회가 있었고 학교에서도 버스를 빌려서 같이 가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때도 저는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다.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의견을 표현하고 시위를 하는 등의 행위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잘 알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과정에서 처음의 좋은 취

지가 변질되는 모습, 누르면 소리 나는 닭 인형 같은 걸 줄로 끌고 행진을 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렇게까지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집회나 진보에 거리감을 두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로 새누리당의 보수는 아닌 게, 지지하는 정당이 딱히 없지만 요새 정의당이 괜찮게 느껴집니다. 새누리당은 부자들을 위해주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조금 싫게 느껴지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이라 그런지 태클 걸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의당은 작은 당이지만 의원들이 이상향으로 이야기하는 생각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박사과정 선배의 추천으로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정치적인 이슈에 조금씩 관심을 갖고 있는데, <노유진의 정치카페>도 듣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치적 이슈에 관심이 조금씩 생겨서,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기도 한데 워낙 주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는 형 하나가 정치 시사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있긴 한데, 그 형은 너무 편향적이라서 합리적인 대화가 잘 안 됩니다. 합리적인 대화가 되는 사람을 찾고 싶어요.

- 연구참여자 13의 이야기

저는 25살, 정말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연구참여자 13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취업준비생이자 백수입니다. 전주에서 태어났고, 대학 오기 전까지는 계속 전주에서 평범한 학생으로 살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갈지, 그냥 전주에 있는 대학을 갈지 고민을 하다가 서울을 택했습니다.

저는 위계질서라든지 누가 시키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학이 국문과 분위기가 그런 게 거의 없어서 좋았습니다. 수업 분위기도 자유로웠고요. 그런데 국문과 전공생으로서 글 한편 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학회에 들어갔었는데, 거기 한 선배가 권위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학회원들끼리 토론하는 와중에 자기가 선배라는 이유로 그걸 끊으라고 할 권리는 없는 데, 그런 걸 강요한다던가, 말을 안 들어주면 기분 나쁜 티를 내고요. 그런 일 때문에 학회를 나오고, 언젠가 글 하나 길게 써서 공모전 같은 데 내 보고 싶다는 마음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아쉬운 일이죠. 이후에는 연극영화학 복수전공도 하고, 휴학 하고 영화제에서 자원봉사도 하고 하면서 지내다가 어찌어찌 졸업을 하

게 되었습니다.

사실 졸업할 때쯤은 제가 지금쯤은 외국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친구가 정부 지원 해외 인턴 시스템을 알려줘서 그걸 지원했었거든요. 서류도 되고 면접까지 됐는데 황당하게 3차 화상 외국인 면접에서 떨어져버렸습니다. 진로가 정확히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졸업은 했는데 길이 없어지니까 뭘 해야 할지 좀 애매해진 상황이 됐어요. 영화사 쪽에서 일하고 싶어서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영화사는 공고도 잘 안 나오고 경쟁률도 너무 높아서 취업하기가 좀 어렵고, 의욕도 많이 상실됐습니다. 대학 다닐 때 인턴을 했던 출판사에서 신입 직원을 뽑는데 지원해 볼 생각이 있냐고 제의가 들어왔었는데, 책을 만들고 싶은 의지도 없이 취직을 하려고 그냥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무책임하다느니 의지가 없다느니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한번 살다 같 인생 아등바등하기 보다는 행복하게, 편하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사는 게 제 가치관이라서요.

정치적으로 저는 진보보다는 보수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진보라고 말하기에도, 보수라고 말하기에도 어색하긴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변화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전라도에서 자라서 주변 사람들도 대부분 민주당을 지지했고, 아버지는 이 동네에서는 드문 한나라당 지지자였지만 사회학과를 나온 오빠는 완전히 진보 쪽이었는데도 저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집권하고 있는 정치인들을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본인들의 이익이 먼저인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고 있다고 생각하면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친구들과 정치 얘기는 원래 잘 하지 않아요. 충돌하게 될 지점이 많아서 미리 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요새는 공통으로 싫어하는 것들이 생겨서, 그런 얘기들을 좀 합니다. 예를 들면, 일간베스트요.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행동이 일베 사이트에 '나 오늘 그런 년 봤다'는 식으로 오르내릴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섬뜩하고 기분이 나쁩니다.

<부록2> 심층인터뷰 질문지

■ 연구참여자 구술생애사

-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지금의 직업/공부/생활에 있어서 힘든 점, 어려운 점은 어떤 게 있나요?
- 태어나셨을 때부터 스무 살 이전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를 가정환경, 학업 환경 등의 성장배경을 포함하여 최대한 자세하게 기억해서 말씀해주세요.
- 마찬가지로 스무살 이후 지금까지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들려주세요.
- 혹시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시면 기억에 남는 세 가지 일을 꼽아주세요.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 IMF에 대한 기억이 있으세요?
- 2008년에 있었던 미국산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대한 기억이 있으세요?
- 조금 추상적입니다만 정치관/세계관/가치관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 1이 가장 진보적인 쪽이고 7이 가장 보수적인 쪽입니다. 자신의 정치 성향을 숫자로 표현해주세요. 왜 그 숫자를 고르셨는지도요.
- 한국사회의 가장 큰 세 가지 문제는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그런 한국사회의 문제들은 청년문제에는 어떻게 적용된다고 보십니까?
- 지금 가지고 계신 정치 성향에는 어떤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으셨다고 생각하시나요?
- 정치관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 사건
- 한국사 교과서를 만드는데 딱 세 가지 역사적 사건만을 넣을 수 있다면 어떤 것들을 선택하시겠습니까?

■ 청년세대

- 청년세대라는 이름 안에 자신을 묶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 TV나 신문, 인터넷 등에서 청년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내 얘기라는 생각이 드시는 편입니까?
- 요즘 청년세대가 진보적이라는 말이 있고, 보수화되었다는 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요즘 청년세대가 도전적이고 창의적이라는 말도 있고, 반대로 멍청하고 스펙만 추구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요즘 청년세대가 싸가지가 없다는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본인이 88만원세대라고 생각하십니까? 88만원세대라는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G세대는 'Global의 약자로, 1988년 전후에 태어나 '부유한 환경에서 성장한 세대'를 뜻합니다. 본인이 G세대라고 생각하십니까? G세대라는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삼포세대는 '연애, 출산, 결혼을 포기한 세대'를 뜻합니다. 본인이 삼포세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삼포세대라는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변에 정말로 연애, 출산, 결혼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나요?
- P세대는 한 신문에서 만든 말인데, P로 시작하는 여러 영어단어를 따서 만든 말입니다. Pragmatic(실용적), Patriotism(애국심), Pleasant(유쾌한), Power&Peace(힘과 평화), Personality(개성), Pioneer(개척자). 본인이 P세대라고 생각하십니까? P세대라는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오늘날 청년세대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 그러한 청년세대의 특성은 기성세대와 완전히 구별되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 청년세대와 기성세대를 구분할 수 있게 하는 기준, 지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청년세대담론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 세대에 관련된 신문기사들을 발췌해서 프린트해 왔습니다. 읽어보시고 뭐든 좋으니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말씀해주세요.